

표지사진 / 운문사 들어오는 길 벚꽃.

## 雲門僧伽大學

714-883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번지 雲門寺 편집부 (054) 370-7139 / 종무소 (054) 370-7100  
E-mail : unmoon@cholian.net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봄호·통권 제100호·2007년 4월 26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발행처·운문승가대학 / 발행인·명성(전임호) / 고문·임진·편집·운문승가대학 문화부  
편집장·경석·편집위원·원재, 정안, 제홍, 동우, 혜준, 문강, 유덕, 현도 / 사진·우연  
컴퓨터·범중 / 편집디자인·憲 미디어 (02)2285-3366



월기 22555-1년  
본호 통권 제 100호  
운문승가대학

雲門



불기 2559년 봄호 통권 제100호

# 雲門

## 목 차

호거산 운문사	2
죽림헌	3
교수논단	4
차례법문	6
학인논단	10
이 한권의 책	12
특별기고 I	16
사찰탐방	18
깨달음으로 가는 길	22
想	24
특별기고 II	25
선사이야기	26
담소	30
끝없는 여정	32
지금, 행복하십니까?	34
수행의 두레박 I	38
II	40
풍경소리	42
생활 속의 진언	44
방부소감 I	45
II	46
운문논평	47
운문소식	48
동불	50
꿈꾸는 동자승	51
김규완	
이 영겁에 사무친 빛을 편집부	
운문지 100호 발행을 축하하며 명성스님	
본공당(本空堂) 계명(戒明)선사의 삶과 수행 진광스님	
진실한 말의 향기 혜운스님	
승가의 식생활 습관 고찰 선주스님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 현수스님	
다시 듣고 싶은 죽비소리 수혜스님	
진선진미의 땅, 월명암을 찾아서 명지스님	
빈 쌀독 두드리며 편집부	
풀밭에 누워 도일스님	
생각론 정민	
사람노릇, 중노릇 … 해운스님	
절로 절에 가 절하는 이유 성석제	
『초발심자경문』대로만 살아 종희스님	
나의 사랑하는 생활 일진스님	
一切唯心造 동준스님	
희망에 대한 斷想 일혜스님	
세상 속에서 만난 부처님 혜강스님	
옴 가마라 사바하 편집부	
물 흐르듯 … 혜민스님	
운문호 타이타닉 광우스님	
반복의 힘 편집부	
꿈꾸는 동자승 김규완	



아늘나와 신비해와 거룩하여라  
등을 빛한 백리에서  
그모두가 나눠졌고  
나눠진 그자리서  
나시하나로 모아져도  
그모습은 항상 하여  
먼 험이 없는 나이끼  
그 뼈의로 돌아 왔으니  
온실걱정을 갖시로 나누었으나  
거정스님 시 호정이 명우



## 운문지 100호 발행을 축하하며

명성 / 운문승가대학 학장

지난 1982년 한 학인의 발의에 의해 시작된 운문지가 벌써 제100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타블로이드판으로 간행된 창간호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운문지는 외형과 내용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5년의 星霜동안 운문지는 운문사 발전의 산실이자 그 증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세월에 한 잡지가 100호까지 발행되기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학인스님들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이 잡지가 한 회도 거르지 않고 100호까지 간행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대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운문지는 다른 잡지와 달리 외부의 기고보다 주로 강사스님들과 학인들이 직접 쓴 글로 채워지고 있어 원고의 작성에서 편집과 간행, 배포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학인 스님들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전문가의 글처럼 유려하지 못하고 어설프고 부족하지만 운문지에 실린 글들에는 학인 스님들의 온갖 애로와 수행의 체험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선배를 찾아가 묻고 선지식의 말씀을 모아 자신과 도반, 불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수행을 반성한 글들로 운문지는 늘 넉넉하고 향기롭습니다. 초심자의 해맑고 풋풋한 모습이 가감 없이 그대로 실려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야기나 깊은 사색의 글이 아니어도 첫 발심의 진지함과 진실함으로 그 어떤 설법보다 그 어떤 아름다운 문장보다 더 깊이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처럼 운문지는 스님들의 수행의 방편이자 자취이며 동시에 한 사람의 전범사역 할도 훌륭하게 해왔습니다.

오늘 밤도 운문지 편집실의 등불은 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문사 역사의 산증인이었던 것처럼 운문지는 앞으로 운문사 발전을 이끌고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옥고를 투고해주신 여러 분들과 운문지 발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바쁜 일과 틈틈이 원고를 쓰고 책으로 발간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여러 학인 스님들과 편집을 맡은 문화부 스님들에게 고마움과 칭찬의 말을 전하며 내일도 오늘과 같이 끝없이 발전해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운문지가 저 은행나무처럼 큰 그늘을 드리우는 아름드리나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 본공당(本空堂) 계명(戒明)선사의 삶과 수행

진 광 / 운문승가대학 강사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본공선사의 생애
3. 본공선사의 수행생활
  - 1) 만공선사를 친견하다
  - 2) 수선안거의 수행생활
4. 수행의 특징
  - 1) 철저한 신심
  - 2) 참선과 기도의 일치
5. 나가는 말



본공 선사 진영

입적하신 스님의 경우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 본래 면모를 자세히 기술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비구니선사들의 경우는 비구선사들에 비해서 더욱 자료가 부족하다. 단지 구

전되어 오는 말씀과 현재 승가의 모습에서 지나간 비구니스님들의 삶과 수행을 미루어 알 수 있을 정도이다. 다행히 최근에는 앞서 살다 가신 비구니스님들의 삶과 수행에 관심을 갖고 그 행적을 추적하여 기록한 자료들과 관련 문헌이 늘어나고 있어, 수행의 한 부분이나마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매우 의미가 있으며 우리 후학들이 반드시 연구 선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선대 비구니스님들의 수행을 모범 삼아 현재 우리 삶을 성찰하고 미래의 비구니상을 정립해 나아가야 한다.

본공 선사에 관한 자료는 당대 선지식들과의 서신과 『깨달음의 꽃』<sup>1)</sup>을 주로 참고하고, 그 밖에 스님의 행적을 기억하는 후학들, 본공 스님과 관련 있는 스님들이 기억해 낸 증언에 의존하고자 한다. 특히 본공 스님의 속가 종질녀이자 상좌인 대구 서봉사의 경희 스님의 증언을 주로 참고하여 스님의 삶과 수행을 살펴본다.

## 2. 본공 선사의 생애

이 글의 집필 목적은 본공당(本空堂) 계명(戒明) (1907~1965) 선사의 생애와 수행을 통해서 한국 비구니승가의 수행전통과 당시의 수행 일면을 살피는 것이다. 현재의 한국 비구니 승가는 불교가 한국에 전래되던 때부터 시작되어 1,600여 년의 오랜 역사와 수행전통을 지니고 있다. 비구니승가의 전통 또한 비구들과 기본적으로는 통하는 부분이 있겠으나 비구니라는 특성 때문에 비구들과는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본공 스님은 1907년 음력 4월 1일에 지금은 북녘 땅이 되어 있는 곳인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덕산리 272번지의 부유하고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출생하였다. 스님은 아버지 달성 서(徐)씨 재현(載賢)과

어머니 변(邊)보리성 사이 5남2녀 중 차녀로서, 속명은 봉(鳳)이다. 스님은 어려서부터 인품이 넉넉하고 씩씩하여 장부의 성격을 타고 났으며, 불교 집안의 정서 속에서 선근을 키우며 자랐다. 스님은 19세 (1925년)에 금강산 유점사 득도암에서 박사득(朴四得) 스님(1862~1940)의 손상좌인 상운(祥雲) 스님(1879~1943)<sup>2)</sup>을 은사로 모시고 사미니계를 수지하였다. 이때 받은 법명이 ‘계명(戒明)’이었다. 당시 은사스님이던 상운 스님도 삭발한 지 불과 7개 월여밖에 되지 않았던 때였다고 한다.<sup>3)</sup> 한편 본공 스님의 상노스님 되시는 사득 스님은 <sup>4)</sup> 속가에서 물려받은 유산으로 금강산의 비구니재별로 불릴 만큼 재력이 있었는데 아낌없이 주위에 나누어 주고 불사에 보시하여 주변의 칭송이 자자했다고 한다. 김윤호 스님(1907~1995)의 은사였던 홍상근 스님(1872~1951)과 박사득 스님은 금강산 마하연선원에서 서진하(徐震霞) 스님에게서 수계하였으며, 본공 스님과 윤호 스님은 동선(東宣) 스님에게서 같이 수계하였다. 후에도 두 분은 오랫동안 좋은 도반으로서<sup>5)</sup> 서로 수행탁마하였다.

스님은 23세(1929년)에 금강산 유점사에서 조실 이신 동선(東宣)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였다. 이후 만공 스님이 계시던 수덕사 견성암에서 6년간 용맹정진하였다. 그 후 대승사 윤필암에서 입승으로 3년간의 안거를 마쳤다. 31세(1937년)에 윤필암에서 하안거를 마친 후 만공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 일대를 유행하고 오대산에서 한암 스님을 친견하였다. 한암 스님의 가르

침에 따라 오대산 지장암에 선원을 개설하고(1937년) 여러 해 동안 안거 하였다. 42세(1948년)에 해인사 국일암에서 선원을 개설하고 입승으로 5년 동안 수행정진 하였다. 47세(1953년)에 범어사 대성암에서 3년 동안 안거하였고, 50세(1956년)에는 통도사 내원사에서 3년의 안거를 마쳤다. 53세(1959년)에 설석우 스님 이 계시던 남해 도성암에서 1년간 안거 · 정진했으며, 54세(1960년) 묘관음사에서 2년간, 56세(1962년) 동화사 부도암에서 안거를 하셨다.

이렇듯 수많은 선원에서 수행정진하면서 늘 입승의 소임을 맡아 대중스님들을 이끌었다. 그러나 1965년 음력 2월 27일 세수 59세, 법 납 40세로 대구 기린산 서봉사에서 입적하셨다. 상좌로는 법열(法悅), 선행(善行), 경희(慶喜), 도안(道眼), 유심(唯心), 무주(無住), 지홍(知弘), 자호 스님 등이 계시지만 다 돌아가시고, 현재는 경희<sup>6)</sup> 스님만이 생존해 계신다. 손상좌로는 명성(明星), 명원(明圓), 명길(明吉), 명호(明昊), 명우(明又), 명순(明淳), 명진(明進), 명권(明權) 스님 등 본공 스님 문하(봉래문중)에 약 200여 명의 스님들이 있다.

2) 1929년 萬性 스님(1870~1935)을 은사로 출가하였으며 금강산 홍수암, 정혜사, 견성암 등에서 수행하였다.

3) 경희 스님(대구 서봉사 주지스님)의 증언.

4) 1887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世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으며 친가의 재산을 금강산 유점사, 장안사, 표훈사, 마하연, 득도암, 홍수암, 신계사에 헌납하고 득도암, 홍수암을 창건하였다. 박사득 스님의 공덕비는 서봉사 경희 스님께서 금강산 신계사에 가셨을 때 일주문 옆에서 처음 발견하였다. 사득 스님은 원래 유점사 스님으로 신계사 불사에 많은 시주를 하셨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 유점사에서 열반계를 모으고 금강산의 여러 사찰의 불사에 보시를 한 기록이 「金剛山榆岫寺涅槃禊案序」에 나오고 있다.

5) 진우(서울 청룡사 주지스님) 스님의 증언.

6) 제정 스님, 「금강산에서 떠우는 편지 - 유점사 비구니스님 문중」, 『불교신문』, 2005. 9. 7. “경희 스님의 은사는 본공 스님이고, 본공 스님의 노스님이 사득 스님이다. 본공 스님과 경희 스님은 각각 강원도 고성군 덕산면과 외금강면 출신이다. 지금은 북녘 땅이 되어 있는 곳이다. 모두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으며 본공 스님은 경희 스님의 친이모가 된다. 경희 스님은 어린 시절 할머니 손을 잡고 온정리 온천에 다니던 일들을 생생히

1) 하춘생, 「시대의 참禪客」, 『깨달음의 꽃』, 도서출판 여레, 1998, 89~101쪽.



온사 본공 스님을 회상하는  
대구 서봉사 주지 경희 스님(상좌)

## 진실한 말의 향기

혜 윤 / 사교과

대중스님!

스님들께서는 하루 일상 중 어떤 일로 가장 많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다스런 잡다한 말은 아닐지라도 그렇다고 딱히 요긴한 말을 한다고도 할 수는 없는, 그저 습관적이고 무심결에 이런 저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身, 口, 意 '三業' 중 하나인 이 입의 허물을 차라리 침묵으로 다스리셨고, 또 반대로 부처님께서는 49년을 설하셨지만 한결같이 '法'이 되는 말씀만을 하셨으며, 나중엔 이 '한 법(一法)' 조차도 설하신 적이 없다 하셨습니다. 말은 내 마음의 표현이며, 나의 영혼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거짓 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의 전환점에서 힘겨웠던 순간을, 따뜻한 몇 마디 말씀으로 소중한 힘이 되어 이끌어 주셨던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 드릴까 합니다.

오래전 제가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많이 혼란스러워 하던 때 우연히 만난 어느 점쟁이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공원에서 용돈이나 벌어볼 생각으로 앉아 계신 듯하였는데, 주위 다른 분들과는 달리 많이 초췌하고 불쌍해 보이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당연히 장사가 될 리는 없었고, 그런 모습에 호기심 반 동정심 반으로 친구들은 그 분한테 점을 보자는 제의를 합니다. 몇몇이 먼저 갔다 오더니, 둘뜬 얼굴로 보기에는 달리 신통하다고들 하며 멀찌감치 구경만 하려던 저를 테리고 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할아버지는 저에게 생년월일이나 이름, 하다못해 나이조차 묻지를 않으시고 그저 민망하리만치 저를 물끄러미 쳐다만 보십니다. 한참 후 불쑥 하시는 말씀 "학생은 내가 보니까 곧 먼 길 나갈 사람 같네. 맞지? 근데 아무리 봐도 자네한테는 더 이상 사주가 보이질 않는구먼. 거 참!" 하며 난처하신 듯 아예 눈을 감으시더니 "그저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자네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열심히

하시게. 지금 사는 이게 다 사주가 아니고 뭐겠는가. 좋은 사주 만들어 가면서 잘 살아 봐."

실제로 2, 3일 후면 다른 곳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던 저는 반신반의하며, 한편으로 그동안 가슴 졸이며 심란해 했던 불안함을 일시에 날려 버릴 수 있었습니다.

훗날 들은 얘기에 의하면, 당시 친구들이 초조해하는 저를 보고 할아버지께 좋은 말만 해주실 것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 인연을 계기로 친구들은 후로도 가끔씩 찾아가서 덕담(?)을 듣고 오곤 한다는데요. 나중에 제 출가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그래서 사주가 잘 안 보였었나?" 하시며 당신 삶에 가장 뜻 깊은 일이라 좋아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그날 당신이 어렵사리 모으셨을 하루 복채를 몽땅 다 보시해 오셨습니다. 과정이야 어찌되었건 그분의 진심 어린 배려의 말과 제 친구들의 기특한 마음 쓴씀이 덕분에 아마도 제가 장애 없이 이 길로 잘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분 제 삶에 가장 큰 마음의 후원자이며, 안식처이신 분. 바로 저의 모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나오려 하질 않아서 의사와의 힘겨운 사투 끝에 간신히 끌려나온(?) 문제아였습니다. 부친의 피를 말리고 모친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가까스로 세상에 내놓은 두 분의 첫 작품답게 아낌없는 후원과 넘치는 사랑을 한꺼번에 받아야 했습니다. 철들자 저는 제 뜻을 싉아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가친척 하나 없는 곳으로 고집스레 떠나갔고, 그렇게 홀로 10여 년을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전화 한 통화로 들으신 제 출가 소식에 부친은 석 달을 꼬박 누워 지내셨고, 다행히 독실한 불자셨던 저의 모친은 착잡한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 길도 네가 꼭 가야 한다는데 내가 무슨 이유로 말릴 수 있겠느냐. 다만, 그 쉽지 않은 길을 네가 잘 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하시며 되려 부족한 이 아이가 부처님 전에 혹여 누가 되지는 않을지 크게 염려하셨습니다. 그러시던 분이 제가 '계'를 받고 오자 제 일 먼저 달려오셔서 지극한 큰절로서 예를 갖추고 쪽지를 손에 꼭 쥐어 주십니다. 내용인즉, "혜윤스님! 열심히 공부 잘 하시고, 정진 잘 하시고, 성불하십시오.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

별 속에 빛나는 달처럼,

모든 사람 속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광명도 그와 같으리라.

모든 보배 중에서 진실한 말의 보배가 가장 훌륭하며,

모든 악행을 떠나려면 진실한 말로 떠나는 것이 제일이다.

『정법념처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수행자가 입을 다스림에 마땅히 묵묵한 침묵으로 지켜야 함이 옳은 일이나, 입을 열어야 하는 순간이라면 그 말 한마디에 달혔던 마음이 열리고 상처의 응어리가 눈 녹듯 녹을 수 있는 깊은 감동과 오래도록 잔잔한 여운을 남기는 휴식과 같은 말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야말로 바로 진실한 보살의 법문이며, 지극한 보살의 법공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중 스님! 성불하십시오. ☺

## 승가의 식생활 습관 고찰

선 주 / 사교과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현재 강원 학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식습관
3. '음식을 먹는다'는 것의 불교적 의미
4.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기 위한 개선 방안
5. 나가는 말

### 1. 들어가는 말

강원은 스님들이 출가한 후 최초 수행인으로서의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이며 대중 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僧다운* 훈련을 익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올바른 수행자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에 '올바른 식습관'도 또한 빠질 수 없는 문제이다. 절집에서 배워야 할 식습관은 단순히 밭우공양 작법이 전부가 아니라, 수행을 위한 음식물이 몸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며, 어떻게 받아들여 수행에 쓰이며, 나아

가 어떻게 음식에 대한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

그러나 진정한 탁발 정신과 밭우 공양의 의미는 점점 퇴색되어지고 위장병을 앓는 스님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식'과 '채식'으로 대표되는 건강식으로 알려진 사찰음식을 매일 먹고, 폐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스님들이 갖은 질병을 앓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 보다는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현 강원에서 식생활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그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현재 강원 학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식습관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비만비율 연구 결과에 평균 체질량지수(BMI)는  $25.20 \pm 3.84 \text{Kg/m}^2$ 으로 아시아-태평양 진료 지침에 따른 분류상 1단계 비만에 속하는 수치를 나타내었다.<sup>1)</sup> 자신의 건강상태에 관한 설문 결과를 보면 <표1>과 같고, 본인이 평소에 특히 안 좋다고 생각하거나 건강과 관련하여 걱정되는 질환에 대한 질문에서는 위장질환이 31명 (51.7%)으로 다른 질환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른 연구자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비구니 스님의 36%가 현재 질병을 앓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와 본 연구결과를 함께 검토할 때 비구니 스님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sup>2)</sup>

비만과 위장 질환 등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의 60% 이상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한 생활 습관병이라고 한다. 즉, 대부분 스님들의 잘못된 식습관이 그 원인임을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한다.

#### 1) 너무 빨리 먹는다.

일반적으로 스님들은 대중이 함께 공양을 시작하

1) 구체적으로 결과를 검토하면, 2단계 비만에 속하는 30 이상인 경우가 4명(12.9%), 1단계 비만에 속하는 25에서 29.9인 경우가 11명(35.5%), 위험 체중 범위인 23에서 24.9까지인 경우가 7명(22.6%)에 달해 정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71%나 되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현저하였다.

2) 김동일,『수행과 건강』, 동국대학교출판부, 2006.

고 함께 끝내는 밭우공양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을 받아서 제 시간에 다 먹기 위해서 밥 먹는 속도가 일반인보다 훨씬 빠르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강원체제는 많은 대중이 시간표에 맞춘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든 생활에 있어 시간다툼을 해야 한다. 공식적인 시간표에는 공양시간은 30분이다.

를 일으키는지 알아보면,

- ① 음식을 빨리 먹는 습관은 포만감을 주지 못해 과식을 부추기며 비만의 원인이 된다.<sup>3)</sup>
- ② 머리와 간을 나쁘게 한다.<sup>4)</sup>
- ③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한다.<sup>5)</sup>
- ④ 아래와 같은 여타 다른 나쁜 식습관을 야기 시킨다.

2) 군것질을 많이 한다.  
때 아닌 때 자주 먹는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지금 열량만 높고 신체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은 거의 없는 정크(junk)푸드와 탄산음료를 초·중교에서 판매 중지시켰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비시식계(非時食戒)'가 기본인 승가에서 부족한 열량을 채우려 혹은 익숙한 맛들임에 끌려 군것질이 일반화되어 있다.

하루에 4식이면 반드시 틸이 나고 5식은 도리어 허기가 지며 6식이면 매우 해롭게 된다. 대·소장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려면 천일 동안의 절식(節食)이 필요하지만, 질병은 단 한 번의 식사나 3일의 시간만으로도 발생한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1일 3식에 2참(간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 몸과 마음을 총명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sup>6)</sup>

3) 과식을 많이 한다.

꽉 짜인 생활과 늘 시간에 쫓기듯 빨리 먹는 식습관으로 인해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 일상적으로 과식을 하게 된다. 매 끼니마다 새로운 음식을 해서 남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에 의무감으로 자신의 양을 넘어서는 경우도 많다. 또 결식하는 문화는 없

<표1> 비구니 스님에게 흔한 증상

주된 증상 (N=60)	N(명)	백분율(%)
쉽게 피로하다	47	78.3
양 어깨가 항상 무겁고 뻐근하다	38	63.3
뒷목이 아프다	31	51.7
머리가 자주 아프다	34	56.7
얼굴, 손, 발이 뜯는다	32	53.3
소화가 안 되어 더부룩하다	30	50
혀리가 아프다	28	46.7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린다	26	43.3
손발이 저리다	25	41.7
가슴에 압박감이나 통증이 있다	24	40
자주 어지럽다	24	40
추위를 잘 탄다	23	38.5
잠을 꽂 자지 못한다	22	36.7
정신집중이 잘 안된다	22	36.7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	21	35
변비가 있다	21	35
소변을 본 후에도 시원하지가 않다	21	35

그러나 밥을 먹는데 오롯이 30분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시간 내에 최대한 빨리 많이 먹고, 빨리 치워야 하기 때문에 강원스님들의 식사시간은 보통 5분에서 길어야 10분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빨리 먹는 식습관은 어떠한 문제

3) 1997년 일본 여대생을 대상으로 음식을 먹는 속도와 몸무게, 생활습관 등의 연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가장 빨리 먹는 사람과 가장 느리게 먹는 사람의 몸무게가 5.8kg 차이가 났다.

4) 급하게 먹어 분해가 잘 되지 않은 음식물은 위장에 내·외벽에 찌꺼기로 쌓이면서, 위벽 조직을 굳어지게 하고 그 찌꺼기는 나쁜 독소로 변해 온 몸으로 돌면서 특히 머리와 간에 악영향을 끼친다.

5) 역류성 식도염이란 신물이 올라오고 속이 쓰린 증상이다. 그 원인은 음식을 빨리 먹게 되면 그만큼 많은 공기가 유입되고 공기는 위를 급속도로 팽창시켜, 그 공기를 배내는 과정에서 위산도 함께 역류하게 된다. 역류성 식도염은 식도협착에서 식도암까지 발전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다.

6) 정세체,『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 모색, 2000.

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을 신도님과 스님들의 공양물에 의존하고 있다. 이 공양물은 불규칙적이며 때로는 한 번에 다 먹기 힘든 많은 양이 되기도 한다. 음식물을 보관할 개인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대부분 배가 불러도 과식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과식은 소화계통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그리하여 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sup>7)</sup>

#### 4) 공양 후 바로 이어지는 운력, 육체적 노동

또 하나의 문제는 공양 후 바로 이어지는 운력에 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올바른 식습관에는 식후에 휴식을 취하도록 되어 있다. 몸의 모든 에너지와 피가 소화 기관에 몰려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하게 된다면 능률도 오르지 않을뿐더러 소화 기관에도 무리가 된다.

위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생체리듬을 고려한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다면, 늘 피로와 졸음으로 수업 시간과 입선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결과만이 반복될 것이다.

### 3. ‘음식을 먹는다’는 것의 불교적 의미

僧家(승가)에서 ‘食’ 이란 범어로 ahara에 해당하는 것으로 ‘끌어당겨 보존해간다’는 의미로서, 중생의 육신이나 성자의 법신을 각기 존재하는 상태로 양육하여 길이 유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경전인 『증일아합경』에는 ‘일체의 모든 법은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음식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8)</sup> 『능엄경』의 약상보살과 약왕보살은 음식의 맛을 통해 보살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하지만 먹는 일은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생활이어서, 늘 되풀이되는 지루함 때문에 소홀히 대하기 쉽다. 기본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조직은 엉망이 되고 만다. 부처님은 그 사실을 정확히 깨뚫고 있었다. 때문에 탁발 회수, 시간, 방법, 먹는 법 등에 대해 아주 세세하고 엄격한 계율을 만드셨다.<sup>9)</sup> 이처럼 승

가에서는 음식을 먹는 것이 수행의 기본이며, 그 자체가 수행이라고 보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광명최승왕경』의 「제병품(除病品)」에 ‘시절을 따라 음식을 조절해 먹고 뱃속에 들어가 소화 잘 되면 모든 병이 안 생기느니라’ 하였으며, 『청정도론』에는 음식을 먹는 습관으로 사람의 기질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뒤집어 말하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 하는 식습관은 사람의 기질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음식을 바르게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수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4.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기 위한 개선 방안

##### 1) 꼭꼭 씹어 먹기

밥을 꼭꼭 씹어 먹는 것은 식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꼭꼭 씹으면 입이 마르지 않아 물을 찾지 않게 되고, 침샘효소가 음식물의 일부분을 소화시켜 소화기관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 음식물이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소화가 빠르다.

‘씹는’ 행위는 아래턱에 붙어 있는 저작근의 신축으로 일어나는 아래턱 운동이므로 턱 근육을 발달시키고 뇌에 혈액공급을 촉진하여 뇌를 건강하게 한다. 게다가 자율신경의 균형조절, 노화방지, 지능발달, 충치예방, 잇몸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sup>10)</sup>

섭취한 음식물이 위장에 도달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데는 20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20분 이상, 20번 이상을 씹으며 여유롭게 식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종전의 여유 없는 식사시간과 그 전후 시간 활용에 있어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 2) 현미잡곡밥<sup>11)</sup>을 먹기

현미의 파랗게 새 생명을 돋아내는 배아(씨눈)의 경이로운 생명력은 우리 몸 안에서도 작용하기 때문에 몸을 건강하게 하여 여러 질병들을 예방하고 치

료해준다. 특히 이 배아의 생리작용은 혈액을 정화시켜 혈관병과 심장계 질환의 치유에 도움이 된다. 현미식을 하면 혈장의 단백질량이 많을 때는 줄어들게 하고, 저단백 혈장일 때는 증가시켜 정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현미에는 비타민A와 여러 가지 비타민B류와 C, 그리고 강장효과가 있는 비타민E, 그리고 여러 가지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현미에는 섬유질이 많이 있어서 변비예방에도 효과적이다.<sup>12)</sup>

현미밥은 거칠기 때문에 오래 씹어야 하므로 먹는 것만으로도 올바른 식습관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거친 음식을 먹으라 하셨는데 주로 해석하기는 맛있는 음식을 가려 먹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대적 의미로는 결국은 자연적인 건강식을 말씀하신 것이다.

##### 3) 올바른 공양문화 정착하기

부처님께서는 ‘때 아닌 때 먹지 말라’고 하셨으나, 요즘에는 비정기적이고 불규칙적인 음식 공양물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부처님 당시에는 재가신자들이 공양을 올리려 할 때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무엇을 공양하고 싶으냐고 물으셨다. 그리고 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침묵으로써 승낙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셨다. 시주자가 하고 싶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었다. 초기에는 수행에 필요한 음식과 의복만을 공양 받았다고 한다. 필요 없는 물건이나 지나친 음식은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이다. 우리는 삼륜청정의 의미를 올바르게 새겨, 받는 이나 주는 이나 그 물건이 수행에 있어 진정 필요한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 4) 정기적인 오후불식 하기

생사운회하는 세계를 欲界·色界·無色界로 삼계(三界)라 한다. 이 삼계 중 인간이 속한 욕계에서만 음식을 먹는다고 한다. 욕계란 식욕과 음욕과 수면 욕 등 갖가지 욕망이 주관하는 세계를 말한다. 그 욕계변뇌 가운데서 제일 끊기 힘든 것이 식욕이다. 부처님에서 역대 조사스님들에 이르기까지 이 식욕을 끊지 못하고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은 없다. 깨달음

을 떠나 일반적인 건강론으로 따지더라도 음식을 절제하고 소식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부처님 당시에는 매월 8, 14, 15, 23, 29, 30일을 육재일(六齋日)이라 해서, 그날에는 하루에 한끼만 먹게 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고 음식에 대한 절제를 알게 하셨다. 육재일의 정신을 배우기 위해 특별한 의식인 포살과 自恣가 있는 날에는 午後不食을 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이 요구된다.

#### 5. 나가는 말

『백유경』에 조상을 본받아 무조건 음식을 빨리 먹는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가 나온다. 이 비유처럼 지금 우리는 시간 규칙을 지키려다가 잘못된 식습관을 익히게 되었다. 그리고는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자각과 반성 없이 무감각하게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식습관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강원과 같은 수행 공동체에서는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올바른 식습관을 익히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이 선행되어야겠지만 대중 합의에 의한 구조적 변화도 필요하다.

현명한 대중 생활을 위해서는 일상적인 생활에 가치를 부여하고 시간을 투자해야만 한다. 하지만 일상적인 문제들을 빨리 해치워버리고 ‘수행’ 다운 수행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온종일 바쁘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라는 말처럼 진정으로 하루 24시간 모두 공부여야 한다. ●

####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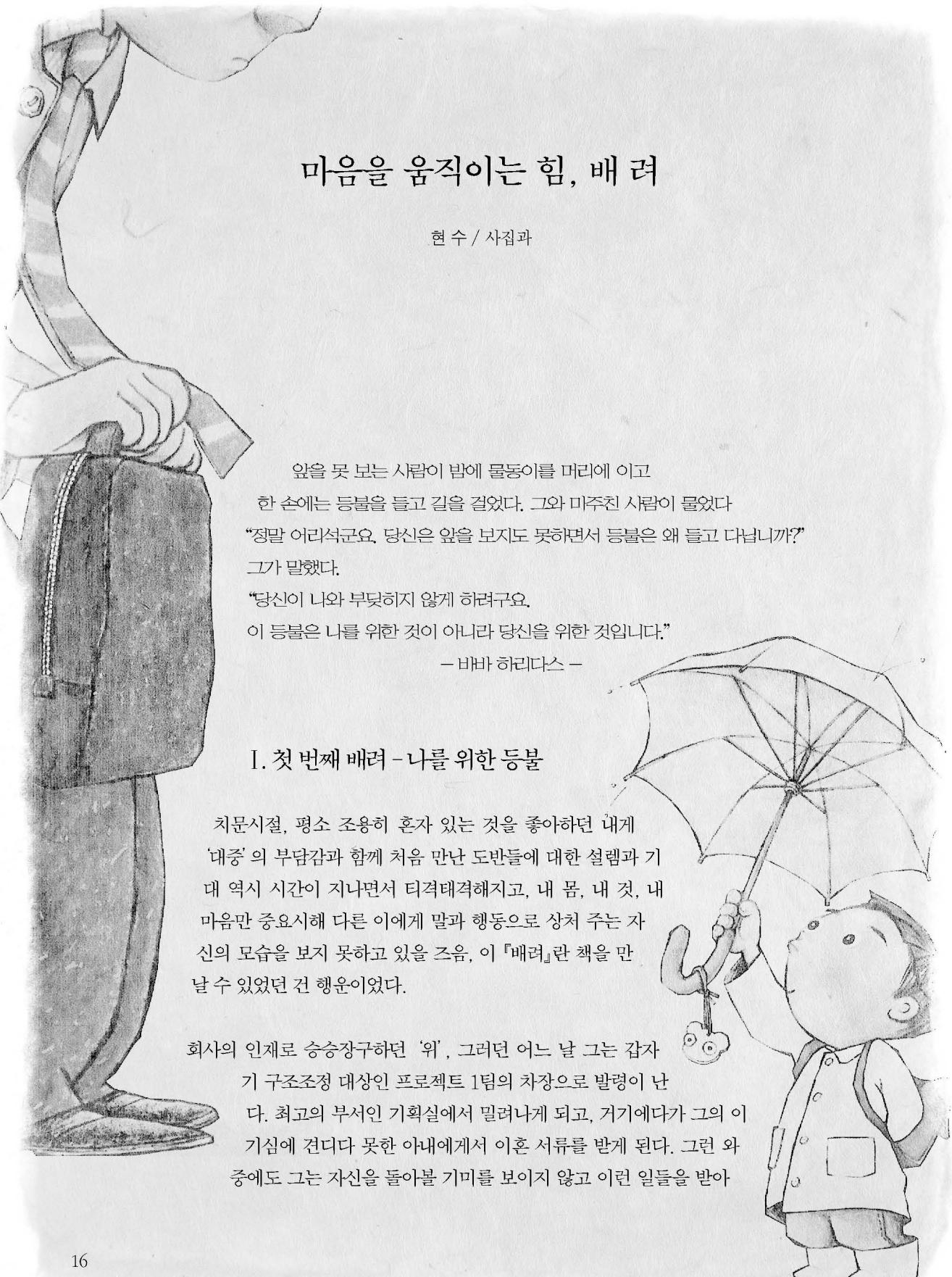
- 아난다 미트라, 『명상인을 위한 채식』, 아난다미트라, 1992.
- 차복경, 『채식을 하는 비구니 스님의 영양섭취 실태 및 심혈관질환 관련인자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1997.
- 봇다고사, 대립스님 역, 『청정도론』1~3, 초기불전연구원, 2004.
- 이태원, 『초기불교 교단생활』, 운주사, 2000.
- <http://www.budreview.com/> 불교평론.

7) 토난한, 『화』, 명진출판, 2003. 8) 이심열, 월간 정각도량 / 2005.11월호.

9) 박부영, 『불교풍속고금기』, 은행나무, 2005. 10) 권오길, 『인체기행』, 지성사, 2006.

11) 순 현미밥보다는 현미 약 60~70%, 콩10%, 율무10%, 기타잡곡10%의 잡곡을 섞은 현미잡곡밥이 이상적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영양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기 위해 현미잡곡밥을 필수요건으로 뽑고 있다.

12) 김세문 기자, 『밥이 보약이요, 밥상이 약상이다』, 민중의 소리, 2006.



##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

현수 / 사집과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길을 걸었다. 그와 마주친 사람이 물었다  
“정말 어리석군요. 당신은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등불은 왜 들고 다닙니까?”  
그가 말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구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 바바 하리다스 —

### I. 첫 번째 배려 - 나를 위한 등불

치문시절, 평소 조용히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던 내게  
'내중'의 부담감과 함께 처음 만난 도반들에 대한 설렘과 기대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티격태격해지고, 내 몸, 내 것, 내 마음만 중요시해 다른 이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을 즈음, 이『배려』란 책을 만날 수 있었던 건 행운이었다.

회사의 인재로 승승장구하던 '위',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구조조정 대상인 프로젝트 1팀의 차장으로 발령이 난다. 최고의 부서인 기획실에서 밀려나게 되고, 거기에는 그의 이기심에 견디다 못한 아내에게서 이혼 서류를 받게 된다. 그런 와중에도 그는 자신을 돌아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런 일들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식으로 치부해 버린다.

이때 그는 11층의 고문실에서 '인도자'를 만나게 된다. 고문실에서 '인도자'를 기다리던 그는 건물 밖 교차로의 어지럽고 시끄러운 광경을 보고 있었다.

인도자가 그를 보며 “저걸 보면서 자네는 뭘 느끼나?” “신호체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신호 잘못이라고? 신호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 글쎄 내가 보기에는 자기만 가겠다고 저러니까 결국 모두가 피해를 입는 것 아닐까? 저 택시 승객 좀 봐. 모퉁이를 돌아 내려도 될 텐데 기어이 저기서 내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잖아 … 자네 아스페거 신드롬이란 말을 들어봤나?” “글쎄요” “남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종의 장애를 뜻하는 말이라네.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세계 속에만 갇혀 있지.” “자폐와 다른가요?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아스페거는 자폐와 달라. 자네 <레인맨>이란 영화에 나오는 더스틴 호프만이 비상한 머리를 가진 자폐 장애인으로 나오지? 최근 학자들은 그런 범주를 자폐가 아니라 아스페거로 분류했다네. 아스페거는 이기적 성격과도 달라. 이기적인 사람들은 남의 입장은 알면서도 자기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만 아스페거는 아예 남의 입장은 이해 못하기든.”

순간! 뜨끔해진 난 도반들에게 여태 행동했던 모습을 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 떠올렸다. 상대방 관점에서 보지 않았던 나, 긴 소임을 살 적에도 반스님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잘잘못을 가리며 뇌롭게 했던 내가 한없이 부끄러웠다. 또한 사소하게 생각하고 멋대로 판단하며 등한시한 나의 잘못들이 인과 응보로 다시 돌아올 것을 왜 몰랐을까?

### II. 두 번째 배려 - 모두를 위한 등불

위는 프로젝트 1팀의 동료들이 하는 행동을 이해

할 수 없었다. 구조조정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항상 웃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 한심하다는 투로 말을 맹는다. 그러자 '공자왕'이 말한다.

“평소의 내 얼굴은 나 스스로 볼 수 없어요. 상대방이 보는 거죠. 힘들다고 찌푸린 채 일을 한다면 나를 보는 사람 역시 찌푸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인(仁)이라는 글자는 사람이 둘만 모여도 서로를 위한다는, 곧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배려를 뜻합니다. 또 사람은 능력이 아닌 남에게 배운 배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그 말에 위는 문득 깨닫는다. 언제나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작은 일에도 경쟁심에 불타올랐던 어리석은 자신도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배려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 역시 이 책을 통해서 반스님들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느낀다. 화가 날 때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하고 참아보려 애쓴다는 점이다. 스스로도 놀란 변화에 반스님들에게 이 책을 권해본다.

### III. 마지막 배려-한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쉽게 지나친 배려, 평범하지만 평범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배려란 단어는 선택이 아닌 공존의 원칙임을 왜 진작 몰랐을까?

배려란,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약속인 것이다.

중요하는 사람이 있는가?

미워하기보다 그 사람을 안아보라.

그리면 사랑과 배려, 깨어있음이 스며들어

그는 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되리라. ♡

## 다시 듣고 싶은 죽비소리

수해 / 34회 졸업생



하고 또 변한다. 그럼에도 나는 이에 집착하고 있으니, 어리석은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구나. 육근(六根)이 청정한 경지에 이르지 않는다면 결코 이 산을 내려가지 않으리라.’

지난 학기 일본불교사 수업시간을 통해 가슴 깊이 탁본해 두었던 전교대사(傳教大師) 사이초(最澄, 767~822) 스님의 별원문을 되뇌어 보면서 가파른 산길로 접어드니, 천태종의 역사를 빛낸 역대 조사님

해발 848m의 비예산 골짜기를 일본 최고의 불교 수행지로 자리매김시킨 전교대사 사이초 스님의 생애와 천태종의 역사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드넓은 도량을 거니노라니, 흰 눈 위에 새빨간 꽃 동백이 통째로 뚜욱뚝 떨어져 내린 비예산 밤치에 일본 최대의 호수 ‘비와코(琵琶湖)’가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산책길에서 우연히 만난 두 명의 학인스님들과 함께 책실로 들어가 다다미방 문을 활짝 밀치고 떨어지



① 비파호  
② 전교대사 최정스님  
③ 3국 공동기념비  
④ 미찌꼬

“인간은 사라 꽂 흘날리는 우주를 방황하는 나그네이다.”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갑판 위에 서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열린 세계평화를 위한 시의 축제(萬海祝典)에 초대받았던 ‘이쿠라 고헤이’ 시인의 「사라의 환상」을 읽으면서 현해탄을 건너 오사카로 들어왔다.

먼저, 들어올 때는 아스카(飛鳥)-나라(奈良)-헤이안(平安)-가마쿠라(鎌倉)-무로마치(室町)-모모야마(桃山)-에도(江戸) 시대 순으로 전개되는 불교사 중심으로, 나갈 때는 그동안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온 문학사 중심으로 일본열도를 살살이 훑어나가 볼 계획이었다. 그리하여 지금 일본 천태종의 총본산 ‘히에이잔 엔랴쿠지(比叡山 延暦寺)’로 향하는 길이다.

동행자는 ‘빌딩 디자이너’라는 조금 독특한 직업

을 가진 스물여섯 살 난 아가씨이다. 몇 해 전 중앙 아시아의 초원에서 우리는 만났었다. 울란바토르에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바이칼 호수로 들어가기 위하여 잠시 여정을 멈추고 있었을 때, 별이 쏟아져 내리는 유목민의 절(천막집) 속에서 며칠 동안 함께 지새우면서, 밤이 깊도록 문학과 예술에 관하여서 무수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었다. 그런데 이번에 교토에서 다시 만나자 기꺼이 길라잡이 역할을 자청해 주었다.

나의 산행에 동행하기 위하여 약혼자와 함께 나타난 ‘미찌꼬’.

푸른 산호빛 기모노 차림에 하얀 털목도리를 두르고 나타난 미찌꼬 아가씨의 모습은, 너무 아름답고 눈부셔 차마 쳐다보기조차 아까울 지경이었다.

‘우리 삶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조차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

들의 행적기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연력사 입구가 나타나고 있었다.

사이초 스님의 성지(聖地)이자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법당 근본중당(根本中堂)을 찾아 천천히 흰 눈에 덮여 고요히 선정(禪定)에 드신 삼나무 숲을 몇 구빈가 휘돌아 반듯하게 포장된 도로를 따라 걸어 올라가자, 저만치 대리석으로 조성된 두 개의 웅장한 비(碑)가 길 양쪽에 우뚝 서서 그 모습을 의연히 드러내고 있었다.

‘천리를 비추고 한 구석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의 보배(照千一隅此則國寶)’라고 쓰인 최정 스님의 유훈(遺訓)과 함께 동쪽 언덕에 자리한 계단원(戒壇院)으로 향하는 산죽나무 우거진 길섶에는 ‘우주공생과 인류화합’을 위하여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에서 공동으로 건립한 ‘천태종 기념비’가 우뚝 세워져 있었다.

는 낙숫물 소리를 들으며 차담(茶啖)을 나누노라니, 나의 기억은 어느덧 아뢰야식 깊숙이 자리하고 있던 추억의 오솔길을 따라 걷기 시작하였다.

아마 지금쯤 그곳에서도 흰 눈 내린 호거산(虎踞山) 자락 솔바람 향기 더욱 푸른 도량에서, 겨울방학을 맞은 치문반 학인들이 사리암 계곡으로 장군평으로 못골로 정처 없이 쏘다니며 모처럼 만의 자유를 맘껏 누리고 있으리라.

언젠가 선지식 탐방란에 실을 원고를 쓰기 위하여 변산 월명암(月明庵)을 오르던 때였다. 자칭 ‘철마’를 모는 기사를 자처한 거사님 한 분과 사진을 담당하고 있는 도반과 함께 실상사 터를 지나 직소폭포 옆길로 난 오솔길을 걸어 오르고 있을 때였다. 때마침 두견새 우는 길섶에는 눈물처럼 후두두둑 진달래꽃잎이 피어나고, 저녁노을은 변산반도를 구석구석 진홍빛으로 물들이며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자, 나는



그만 솟구쳐 오르는 봄 신령에 취해 넋을 놓고 대지의 향연에 젖어 버렸다.

어느새 저만치 앞서 가던 두 사람이 어두워진다고 하도 채근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노을을 뒤로 하고 월명암을 향해 걸음을 놓았다. 대웅전에 올라 참배를 드리고 내려 와 보니, 마침 산찰 해제(解制)날이라 선방스님들께서는 죽비를 놓고 자자(自恣)를 하고 있었다.

저녁 예불 후, 열나흘 달빛이 쏟아져 흐르는 객실에 벌러덩 드러누워 떠오르는 시흥(詩興)을 적으려고 보니, 아뿔싸! 아까 노을에 취해 결망을 그만 길섶에 두고 온 것이 아닌가. 이를 어찌랴. 도반의 필름이며 녹음기, 원고기록 메모지 등이 모두 거기 들어 있는 데….

우리는 선방 수좌들의 환호성에 가까운 자원(?)에 힘입어 함께 바랑을 찾으러 나섰다. 휘영청 달빛 아래 휘파람을 휘휘 불며 결망을 찾아나서는 길은, 어쩐지 올라올 때보다 너무도 가깝게 느껴진다는 게 우리 모두의 지론이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전혀 예기치 않았던 낭패가 발생하였다.

우리가 전화를 드렸을 때 기꺼이 O.K 사인을 보내 왔던 선원의 소임자 스님 왈, “아이고, 편집장 스님요, 이거 아무래도 큰일 났습니다. 쩝쩝” 얘긴즉슨, 실은 며칠 전 우리들의 전화를 받고는 미처 조실스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무조건 우리를 오게 했다는 것이었다. 으~ 이를 어찌랴.

“운문사에서 탐방을 오셨다기에 무조건 노장님께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취재를 오라고 하였는데, 오늘 아침 찾아뵙고 넘지시 말씀드렸더니, 노장님이 팔팔

뛰십니다. 내가 무슨 공부를 한 도인이라고 책에 실리느냐고 저렇게 난리시니, 쩝쩝”

월인(月印) 쁘스님.

좌충우돌의 대명사인, 벽암록(碧巖錄)을 몽땅 불씨지른 저 종남산의 괴각승 대혜(大慧)선사께서 살아 계셨더라면, 필시 바로 이 노장님과 같은 모습이셨으리라. 괴팍한, 정말로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野生) 그대로였다.

나 하나 등 따시자고 귀한 생명을 함부로 베어버릴 수 없다며, 겨울에도 절대 구들에 불을 끼지 않은 냉방에서 덕지덕지 기운 단별 누비에 발우 한 벌로, 쑥발도 직접 하시면서 몇십 년째 장좌불와(長坐不臥)를 하고 계시던 노장님은 변산반도가 짜렁짜렁 울리도록 서슬이 퍼렇게 호통을 치셨다.

“옛 어른 말씀이 ‘밖으로 모든 인연을 끊고 안으로 마음에 혈맥거림이 없게 하라(外息諸緣 內心無端端)’라 하셨거늘, 머리 깎은 중이 참선수행은 하지 않고, 사람들을 점점 미혹하게 만드는 되도 않은 책 쪼가리나 만들려 쫓아다니다가 언제 본분사(本分事)를 마치겠느냐”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이 우리는 기가 꽉 죽어서 점심도 거른 채 산수유 꽃 자박자박 피어나는 도량을 맥 빠지게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녔다. 그런데 저만치서 웬 어른스님 한 분이 걸어오고 계셨다. 우리는 둘 다 내심 열(熱)을 잔뜩 받아있었던 터라, 그냥 무심히 합장만 하고 지나치려고 하는데 “어! 웬일들인가?” 하셨다. 와! 세상에 평소 우리들이 존경해 마지않던 이웃 총림의 어른스님이 아니신가. 회엄학의 대가로 자타가 공인하는 강백스님께서는 잠시 머리도 식힐 겸 평소 존경하는 월명암 조실스님도 찾아뵐 겸 하여서 요 며칠 객실에 머물고 있노라고 말씀하셨다. 오호! 쾌재라! 새옹지마(塞翁之馬)였다. 하여, 우리는 드디어 작전타임 개시.

마침 선방 해제 날이라는 평계로 ‘강주스님과 몇몇 소임자 스님들이 인사 겸 노장님을 찾아뵈려 왔노라’는 주제 하에, 모두 조실스님 처소로 향하기로 하였다. 그 틈에 우리도 슬쩍 문어서 따라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럴 수가… 아까 우리한테는 쓰잘떼기 없는 짓만 골라서 하고 돌아다닌다면 소리소리 지르시던 노장님께서 선방 수좌들이 방문하자, 갑자기 전혀 다른 자비관음의 화신으로 몸을 나타시는 게 아닌가.

어디선가 살강 위 발우에 가득히 담아두었던 곶감이며 잣을 손수 꺼내 놓으시면서, 한철 동안 수고했노

라고 일일이 손까지 잡아가면서 기꺼이 수좌들의 공부를 경쾌해 주시는 게 아닌가. 물론 한쪽 구석에 꿰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묵묵히 앉아 잠자코 기회를 노리고 있는 우리 두 사람은 여전히 거들떠도 보지 않으시면서.

한참 후, 예정된 각본대로 수좌스님들께서 슬그머니 조실스님께 청을 드렸다. 마침 별도로 좋고 도량 가득히 꽃도 피어나고 하였으니, 기왕이면 조실스님을 모시고 낙조대까지 포행을 하고 싶은데 어떠시겠느냐고 넘지시 여쭈었더니 완강하게 거부하실 줄 알았는데, 웬걸 “하하, 우리 수좌 스님네가 꽃구경을 하자는데, 산중에서 이름도 없이 짐승처럼 사는 늙은이가 마다할 까닭이 없지. 내가 오히려 영광이지 뭐. 하하” 하시면서 주섬주섬 행장을 꾸리시는 게 아닌가.

바로 그때였다.

가사를 정중히 수하시고 해진 텔신을 막 신고 일어서시려다가, 무슨 생각에서인지 잠시 마루에 다시 걸터앉으시며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한 말씀 하시려는 모습을 도반 스님이 얼른 카메라에 담아버렸다.

번역 -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거대한 수동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러자 어쩐지 이 모두가 우리들의 고약한 각본(?)이라는 것을 알아채셨는지 어찌셨는지 또 다시 노기등등해지시더니 “비싼 시주 밥 축내며 학인들이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쓸데없는 짓만 골라서 하고 돌아다닌다.”고 노발대발이셨지만, 더 이상 알게 뭐람.

우리는 황급히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인사를 드리고는 끌루랄라 출행랑을 치며 월명암 계곡을 한달음에 경중경중 뛰어내려 와 버렸다.

그 후 내가 강당을 졸업하고 절구통 수좌가 되어서 지리산 자락의 어느 선방에서 정진하고 있을 때, 어느 날인가 바람결에 노장님께서 열반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소식을 전해 준 주위의 도반들이 다비 후 몇 과의 영통한 사리를 출현하였다 하면서 해제하면 우리도 친견하러 가자고 하였지만, 나는 이미 사리 같은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온몸으로 총체적으로 움직이는 육신 사리를 직접 친견했었는데 이미 현재진 행형이 아닌 과거의 잔영을 새삼스레 친견해서 뭘 어찌란 말인가.

결국 일평생 마음공부에 전념해 오신 쁘스님들의 심지법문(心地法門)을, 문자반야(文字般若)를 이루지 못한 철부지 학인들의 수준에서 그 본뜻을 담아내 기란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어서 몇 차례 더 고심하다가 결국 내가 졸업하기 전에 이 선지식 ‘할(喝)’란은 보다 평이한 주제로 슬쩍 대치해 놓을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난다.

낙숫물이 뚜욱뚝 떨어져 내리는 다다미방 객실에 앉아 차를 마시노라니, 떠오르는 추억의 노트 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들이야 몇 날 며칠 밤샘을 한대도 모자라겠지만, 지난해 1월 남인도 아마라바티에서 열렸던 <칼라차크라> 법회에서 ‘달라이 라마(Dalai Lama)’께서 들려주시던 소중한 메시지 한 구절을 전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모쪼록 화랑(花郎)의 정기가 곳곳에 어린 천혜의 도량에서 문화적 절대주의에 빠져 내 것만 좋다고 고집하지 말고,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세계가 하나임을 명심하여 급변하는 세계무대에서 낙후되지 않는 눈 밝은 ‘영혼의 브라만’들이 대거 탄생하기를 기원드리며, 최근 동아시아 불교학의 메카(Mecca)로 급부상하고 있는 대만 불광사(佛光寺) 불학연구소(佛學研究所)를 방문하기 위하여 도쿄 나리타 공항을 향하여 분주히 걸음을 재촉해 본다.

The highest happiness is when one reaches the stage of Liberation, at which there is no more suffering. That's genuine, lasting happiness. True happiness relates more to the mind and heart. Happiness that depends mainly on physical pleasure, one day it's there, the next day it may not be.

최상의 행복이란 대 자유(해탈)에 이르러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고 꾸준히 지속되는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은 더더욱 마음과 가슴에 달렸습니다. 주로 몸의 쾌락에 의존하는 행복이란 오늘 존재하되, 내일이면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것입니다. ◉

약력 | 수해(修海)스님은 우주 시민을 발원하며 행선 중이며 운문사 강원을 졸업하고, 현재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교사학을 전공하고 있다. 시집『山 두고 가는 산』, 2003.

## 진선진미의 땅, 월명암을 찾아서

명지 / 사교과



목숨을 걸고 부부의 인연 맷기를 간청하는 ‘묘화’를 차마 뿐리질 수 없어서 스님의 길을 버리고 그녀와 결혼, ‘등운’이라는 아들과 ‘월명’이라는 딸을 낳은 후에도 거사로서 계속 수행 정진하여 깨달음을 얻은 부설거사가 지었다는 월명암.

전주역에서 차를 타고 내린 곳은 내변산 입구의 남여치 매표소. 이곳부터는 찾길이 없다. 사람들 말대로라면 가파른 산길을 1시간 가량 걸어서 올라가야 한다. 긴 두루마리를 벗어 걸망에 집어넣고 웬지 모를 설렘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다.

‘山上無諍處’

월명암이라는 이름 앞에 늘 따라다니는 수식이다. 뛰어난 경치와 땅의 기운으로 인해 스스로 번뇌와 분별이 끊어지고 가라앉는 장소를 이르는 말이다. 691년 신라 신문왕 11년 부설거사(浮雪居士)에 의해 창건된 이후 13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소실을 반복하면서도 진묵대사, 성암화상, 학명선사, 종홍스님 등에 의해 계속 중건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모든 번잡을 느낄 수 없었던 것도 다이 때문이었을까?

향봉 쿤스님(1901~1983)은 월명암

에 대해 ‘명산이라 하더라도 山이 만족하면 水가 미흡하고, 水가 만족하면 山이 또 미흡해서

조화와 규격을 갖추기가 참으로 어려워서 너무 깊숙한 데는 天獄에 가깝고 너무 노출되면 바람에 저축이 되는데 이곳은 천하에 다시 볼 수 없는 진선진미의 땅’이라고 찬탄하신 바 있다.

눈이 내린 뒤의 질척질척한 길을 밟아 올라가 바라본 월명암. “와~” 깊은 감탄이 절로 나온다. 해발 400m가량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파르고 위압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 곳은 오는 내내 느꼈던 편안함과 아늑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웅전에 들어가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대웅전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부처님 뒤의 팽화가 독특하다. 부설거사, 묘화부인, 등운, 월명이 주황색 후광으로 표현되어 있다. 부설거사는 『부설전』에서 四聖 八賢이 나온다고 예언한 바 있는데 四聖은 부설을 비롯한 일가족 4명이고 八賢 가운데 3贤도 이미 나왔다. 성암, 행암, 학명스님이다. 이제 5賢만이 남아 있다. 이것은 누구나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출타해서 아직 돌아오지 않으신 주지스님을 기다리는 동안 낙조대에 올라가 보기로 했다. 아름다운 낙조를 구경하려면 하늘이 허락하기까지 며칠이든 묵어야 한다는 낙조대. 시간이 늦어 낙조는 볼 수 없어 아쉬웠지만 내변산과 외변산을 망라해서 변산의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보는 것 또한 매우 운치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을 뒤로 하고 나무계단을 따라 내려와 주지스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었다. 조용조용히 불사를 정성스럽게 하고 있다는 스님. “월명암은 출가승에게는 재발심과 분발심을 내게 하고, 재가자에게는 비록 출가하지 못했을지라도 재가자로서도 충분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는 공간이에요. 또한 학명·용성·해



안·서옹 쿤스님 등 많은 고승들이 참선했던 수행도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걸맞는 훌륭한 수행도량으로 가꾸어 나가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재가자나 출가승이나 깨달음을 얻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출가승은 수행·정진할 수 있는 여건이 재가자보다 낫다는 것이 이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세간이나 출세간이나 또는 출가승이나 재가자냐 하는 문제는 수행에 있어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 다만 어느 공간에서든, 어떤 모습으로든 얼마나 열심히 수행하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부설거사가 마지막까지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했던 것은 출가승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걸맞게 열심히 수행하고 있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나태해질 때도,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 같다.

“나는 정말 출가승으로서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있는가?”라고….

## 빈 쌀독 두드리며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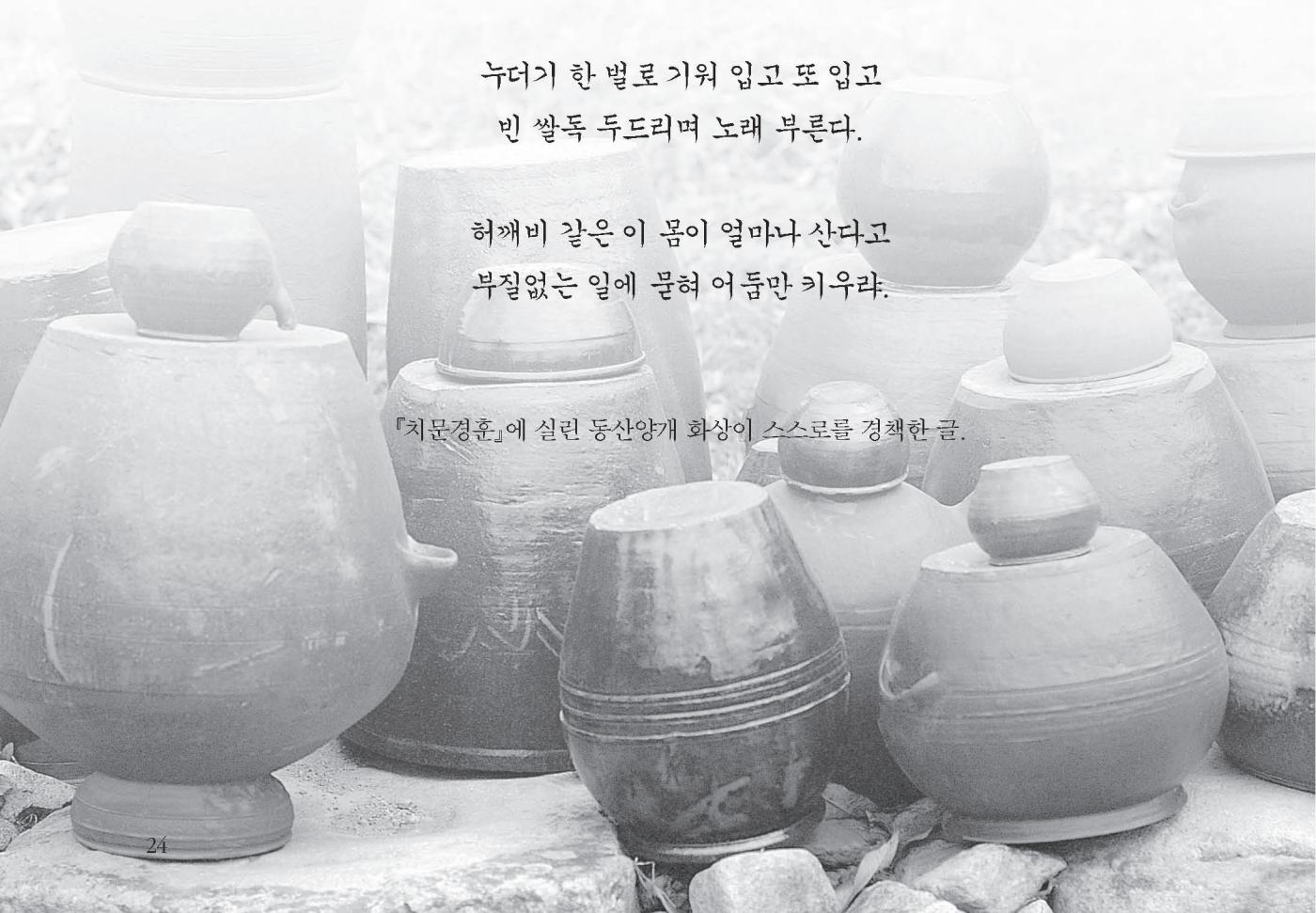
명리도 영화도 돌아보지 말자,  
인연 따라 이 한 생을 보낼 뿐이다.

혀뿌리가 힘을 잃으면 누가 나인가,  
이 몸 죽어지면 헛된 이름뿐.

누더기 한 벌로 기워 입고 또 입고  
빈 쌀독 두드리며 노래 부른다.

허깨비 같은 이 몸이 얼마나 산다고  
부질없는 일에 물려 어둠만 키우라.

『치문경훈』에 실린 동산양개 화상이 스스로를 경책한 글.



구름스가는 앙속의 농음속

煩惱도 함께 날아 가길 :

나는 그다.



풀밭에 누워

도일 / 39회 졸업생

# 思

## 생각론

정민 / 한양대 국문과 교수



이 글의 주제는 생각이다. 생각에도 종류가 있다. 사(思) · 상(想) · 념(念) · 려(慮) 등은 모두 생각을 뜻하는 한자다. 서로 다른 종류의 생각들이다.

사(思)는 마음 심(心) 위에 정수리 신(囟)자를 얹은 모양에서 나왔다. 신(囟)은 뇌의 모습을 본떠 만든 글자다. 사(思)는 머리로 하는 생각, '곰곰이' 하는 생각이다. 사고(思考)나 사유(思惟), 사량(思量), 의사(意思) 같은 말을 보면 금세 알 수가 있다. 심사숙고(深思熟考)도 깊이 따져보라는 말이 아닌가? 또 사(思)는 '그리운' 생각이기도 하다. 누군가를 그린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사람만을 곰곰이 생각한다는 의미다. 사모(思慕)나 상사(相思)나 사친(思親)이니 하는 말이 이 뜻이다.

상(想)은 상(相) 즉 형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다. 마음에 어떤 물건의 형상(形相)이 그려질 때 이 말을 쓴다. 이것을 보는 데 저것이 떠오르면 연상(聯想)이다. 어떤 형상이 문득 떠오르면 상기(想起)이고, 기발한 생각이 떠오를 때 기상(奇想)이라 한다. 쓸데없는 생각은 망상(妄想)이고, 공상(空想)이다. 사람은 발상(發想)이 참신해야 하고, 구상

(構想)을 잘해야 한다. 몽상(夢想)만 하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돌이켜 떠올려 보는 생각은 회상(回憶)이고, 뒤쫓아 떠올리는 생각이 추상(追憶)이다. 사람은 미래를 상상(想像)해야지 옛날만 돌아보며 애상(哀想)에 잠겨서는 안 된다.

념(念)은 마음 심 위에 이제 금(今)자를 얹었다. 금(今)은 머금을 함(含)과 통한다. 마음에 머금은 생각, 달리 말해 뇌리를 '떠나지 않는' 생각이다. 염두(念頭)란 말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 떠나지 않는 생각이 사람이 될 때 염원(念願)이라 한다. 그 생각 외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으면 여념(餘念)이 없다고 말한다. 엉뚱하게 끼어들어 나를 불드는 생각은 잡념(雜念)이다. 사람은 딴 생각 없이 한 가지에 전념(專念)할 때 성과를 거둔다. 그러자면 초념(初念)을 잊지 말아야 한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면 통념(通念)이 되고, 한 가지만 생각하면 일념(一念)이라 한다. 념(念)에는 그래서 '외운다'는 뜻도

있다. 입에서 쉼 없이 부처님을 부르는 것이 염불(念佛)이요, 계송을 외워 염송(念誦)이라 한다.

려(慮)는 생각[思] 위에 범[虎]이 올라탄 형국이다. 마음을 '짓누르는' 생각이다. 마음 심자 윗부분의 글자는 '빙 들리다'는 뜻을 지닌 '로' 자다. 이런 저런 생각이 무겁게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큰일을 할 때는 이것저것 고려(考慮)하고 배려(配慮)해야 한다. 심려(心慮)나 우려(憂慮)를 많이 하면 사람이 지친다. 먼 데까지 내다보는 생각이 원려(遠慮)다. 다 잘해 놓고 한 가지를 실수하면 친려일실(千慮一失)이 되고 마니 애석하다.

이 생각들이 모여 이룬 단어들도 많다. 곰곰이 따져 깊이 하는 생각이 사려(思慮)고, 퍼뜩 떠오른 생각이 나를 짓누를 때 염려(念慮)가 된다. 곰곰이 따져 한 생각이 구체적인 꿀을 갖추면 사상(思想)이 되고, 떠오른 생각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으면 상념(想念)이라 한다. 글자들의 조합은 매우 정연해서 함부로 뒤섞지 못한다. 사려(思慮)나 염려(念慮)라고는 해도 상려(想慮)는 안 된다. 사념(思念)과 상념(想念)은 있어도 여념(慮念)은 없다. 사고(思考)는 되지만 념고(念考)나 상고(想考)는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종류의 생각을 하고 산다. 해서는 안 될 생각이 있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생각도 있다. 무념무상(無念無想)은 좋아도 무사무려(無思無慮) 하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된다. 잡념과

망상 같은 쓸데없는 생각은 부지런히 걷

어내고, 좋은 생각을 해야 한다.

생각을 나타내는 네 글자는 모두 마음 심(心)을 부수자로 한다. 생각이 마음에서 이루 어지는 까닭이다. 생각이 제멋대로 날뛰게 해서는 안 된다. 날뛰는 생각은 괴물처럼

마음을 갉아먹는다. 생각에 못

견뎌서 마음이 달이나 버리면 그때부터 사람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닌 허깨비 인생이 된다.

생각은 어디서 오는가? 바깥에서 온다. 눈에 보이

는 외물이 생각을 만든다. 이것과 저것을 견주고, 내 것과 네 것을 따지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르고, 이익과 손해를 살피는 데서 생각이 생겨난다. 본래 마음은 거울과도 같이 투명한데, 욕념(慾念)이 들끓어 마음을 흐려놓는다. 마음이 흐려지면 장님처럼 어두워져서 판단력을 잃고 악의 구렁텅이로 굴러 떨어진다. 생각은 집착을 낳고, 집착은 번뇌를 낳는다. 번뇌는 독이 바짝 오른 독사와 같다.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단숨에 물어 독이 온몸에 퍼지고 만다.

인생은 한바탕 꿈이라고 한다. 뜬금없는 생각이 일어나 이미지로 떠오르고(想), 뇌리를 떠나지 않으며(念), 골똘히 잠기게 하고(思), 마침내 짓눌려(慮), 일거수일투족 한순간도 생각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 생각을 하다가 저 생각이 떠오르고,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종잡을 수 없기가 마치 꿈 속과 같다. 잠을 자면 꿈에서도 낮에 했던 생각이 밀도 끝도 없이 이어진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이 꿈에서 화들짝 깨어나는 것이다. 생각이 짓는 미망(迷妄)을 일거에 때려부수는 것이다. 오직 인간만이 이 깨달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깨달음은 의심을 끊고 망념을 사라지게 한다. 깨닫게 되면 어지럽던 것들이 일목요연해지고, 제멋대로 날뛰던 마음이 평정을 되찾는다. 따라서 깨달음으로 가는 공부는 생각을 다루는 공부에서 시작되고 끝이 난다. 공부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생각을 잘 다룰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생각에 대한 생각이 각 종교마다 조금씩 다르다.

불교에서 생각은 마음의 거울 위에 낀 때요, 얼룩이다. 생각 때문에 본체가 흐려지고,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뻔히 보면서 엉뚱한 길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도 바로 이 생각의 장난이다. 수행의 목표는 마음 속에서 일체의 상념을 걷어내는 무념무상



# 想

(無念無想)의 경지다. 생각이 사라지면 여여한 본체, 즉 일심(一心)만 남는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멀어붙여야 비로소 무심(無心)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마음조차 없는 단계가 최종 목적지다. 마음이 없다는 것은 아(我)가 없는 것이다. 아가 없으면 꾀(彼)도 없다. 꾀아의 구분이 사라지면 일체의 모든 장벽이 무너진다.

이 경계를 맛보려고 수행자들은 무문관(無門關)의 용맹정진을 마다 않는다. 문 없는 문 안에는 나밖에 없다. 인

위로 외물을 차단한 곳에서 나 자신과 정면으로 맞대결한다. 이른바 화두(話頭)를 드는 것이다. 화두도 생각인가? 화두는 생각을 지우려는 생각이다. 제일 무서운 것은 자신과 맞대면하는 것이다. 맹수가 우는 침침한 깊

은 산속을 헤매는 것보다 빈방에서 나와 맞대면 하는 것이 더 무섭다.

막힌 문 앞에서 자신과 마주 셨을 때 생각의 마장(魔障)이 끼어들면 한소식을 얻으려다 도리어 사람이 못 쓰게 된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닦아서[時時勤拂拭], 마음에 먼지 앓을 날이 없게끔 해야 한다[勿使惹塵埃]. 하지만 깨닫고 나면 더 이상 그런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이니 터끌 먼지가 일어날 데가 없게 되는 것이다[何處惹塵埃]. 깨달으면 시원스럽게 통해 일체의 생각과, 생각으로 말미암은 번뇌가 일시에 스러진다. 마침내 대자유의 경계가 활짝 열린 것이다. 이 원통무애(圓通無碍)의 경계를 일러 '부처'라 한다.

유교에서 마음을 다루는 방법은 좀 다르다. 생각

에도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다. 멋떳한 생각이 있고 사특한 생각이 있다. 사람은 사특함을 버리고 멋떳하게 살아야 한다. 나쁜 생각을 지워내 좋은 생각이 자리 잡게 해야 한다. 멋떳한 생각은 천리(天理)이고, 사특한 생각은 인욕(人慾)이다. 천리를 닦아 인욕을 억제하려는 것이 공부의 목적이요 목표다. 사단(四端)<sup>1)</sup>과 칠정(七情)<sup>2)</sup>이 맞서서 사단이 칠정을 누르는 것으로 귀착점을 삼는다. 그때 천리가 행해져서 무질서가 바로잡히고 인륜도덕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

그러자면 어찌해야 하는가? 무자기(無自欺)와 구방심(求放心) 공부를 해야 한다. 무자기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다. 아무도 본 사람은 없다. 이번만 넘어가자. 다음부터 그렇지 않으면 되지 뭐. 무자기 공부는 여기서 허물어진다. 그래서 유가에서는 신독(慎獨) 공부를 특별히 중시했다. 혼자 있을 때를 삼가라는 말이다. 남 안볼 때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다.

사람의 마음은 늘 다잡지 않으면 제멋대로 돌아다닌다. 들뜬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천근의 무게로 눌러야 한다. 제멋대로 놀려나간 마음을 테려와 제자리에 앉히는 것이 구방심 공부다. 방심을 구하기 위해 성현의 말씀이 담긴 경전을 읽고 또 읽는다. 역사책을 펼쳐 치란홍망의 자취를 살피고 선현의 언행을 참고한다. 하나하나의 말씀과 사례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인간이 가야 할 멋떳한 길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공부는 이렇게 해서 기운을 축적하는 과정이다. 바쁜 기운이 마음에 쌓여 거칠었는 기상으로 뻗어나간다. 이것을 호연지기(浩然之氣)라 한다. 내면에 호연지기가 쌓이면 겹날 게 없고 무서울 게 없다. 마음에 아무런 걸림이 없고, 툭 터져 시원스럽

1) 사단(四端)은 실마리의 뜻으로, 유교에서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는 네 가지 마음을 말한다. ① 측은지심(惻隱之心)-仁에서 우러나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 ② 수오지심(羞惡之心)-義에서 우러나는 부끄러워하는 마음 ③ 사양지심(辭讓之心)-禮에서 우러나는 사양하는 마음 ④ 시비지심(是非之心)-智에서 우러나는 시비를 따지려는 마음.

2) 칠정(七情) : 희(喜), 노(怒), 애(哀), 락(樂), 애(愛), 오(惡), 욕(慾).

# 念

게 된다. 그런 대자유의 경계에 들어선 사람을 '성인(聖人)'이라 한다.

도교에서는 천지의 기운을 받아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평형의 상태를 강조한다. 그러자면 마음을 맑게 하 고 욕심을 덜어내는 청심파욕(清心寡慾)의 실천이 중요하다. 인위를 버려 자연을 찾고, 거짓을 떠나 참됨으로 돌아오는 반박귀진(返樸歸眞)도 강조된다. 끊임없이 적선입공(積善立功)하는 노력을 계을리 할 수 없다. 이런 단계가 하나하나 쌓일 때 비로소 정신을 자유와 초월의 경계에 둘 수가 있다.

이때 정기신(精氣神) 삼보(三寶)의 단련은 필수다. 태식(胎息)과 도인(導引)의 수련으로 정(精)을 기르고, 단(丹)을 돌려 기(氣)를 축적한다. 그러면 신(神)이 열리는데, 이를 잘 지켜 보존하는 것이 수신(守神)이다. 삼보를 닦는 것을 달리 내단(內丹) 수련이라고도 한다. 수행자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깨달음의 과정에 도달한다. 하지만 대부분 깨달음의 직전에 육념을 억제치 못해 좌절하고 만다. 주화입마(走火入魔)에 든 것이다. 온갖 마귀들이 나타나 나를 시험한다. 황홀한 환상으로 유혹한다. 여기서 무너지면 전공(前功)이 가석하다. 환골탈태(換骨奪胎)해서 장생구시(長生久視) 해야 하는데 그 문턱에서 좌절하고 마는 것이다. 이런 난관을 다 극복하여 육망을 억제하고 잡된 망상을 물리치며 외물에 혼들림 없는 완전한 인격을 갖춘 존재가 '신선(神仙)'이다.

기독교에서는 묵상(默想)과 명상(瞑想)을 한다. 묵상은 침묵 속에 생각하는 것이고, 명상은 눈 감고 생각하는 것이다. 침묵 속에 고요히 생각에 잠기면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다. 그 목소리와 만나기 위해 말을 잊고 생각에 잠긴다. 기도는 묵상의 가장 극적인 표현이다. 내 존재를 가만히 내려놓고 섭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기도다. 내가 원하는 것만 잔뜩 늘어놓고, 들어댈라고 매달리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하지만 모든 기도, 즉 묵상과 명상이

# 慮

내면의 평화를 주는 것은 아니다. 예수도 광야에서 40일 간 기도하실 때 마귀의 시험에 든 적이 있다.

기도 속에서 천지만물은 어느 것 하나 하느님의 섭리 아닌 것이 없

다. 침묵 속의 생각은 언제 어디서나 편재(遍在)해 계신 하느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섭리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귀는 활짝 열려 말씀을 듣고, 눈은 크게 떠서 현존을 확인하며, 입은 크게 열어 감사를 찬미한다. 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샘솟는다. 그리고 보면 묵상은 침묵 속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떠다니는 생각들을 침묵시키는 것이다. 명상은 들끓는 욕망을 잡제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생활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고, 삶 자체가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버린 사람을 '성인(聖人)'이라고 한다.

종잡을 수 없는 생각들 속에 하루 하루가 떠내려간다.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고 앓아 있는 생각들 때문에 심신이 피로하다. 백 년도 못 살 인생들이 천년의 근심을 품고 가니, 그 발걸음이 힘겹지 않을 도리가 없다. 마음은 본래 둉 빈 것인데, 어째서 이렇게 늘 부산스럽고 무겁기만 한가? 마음의 주인이 되려면 무엇보다 이 오만 가지 생각들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깨달았다는 것은 비로소 생각을 마음대로 다룰 줄 알게 되었다는 말이다. 생각에 짓눌리고 질질 끌려 다녀서는 끝내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마음 공부에 힘을 쓴는 것도 이 말릴 수 없는 생각이란 괴물을 치치하기 위해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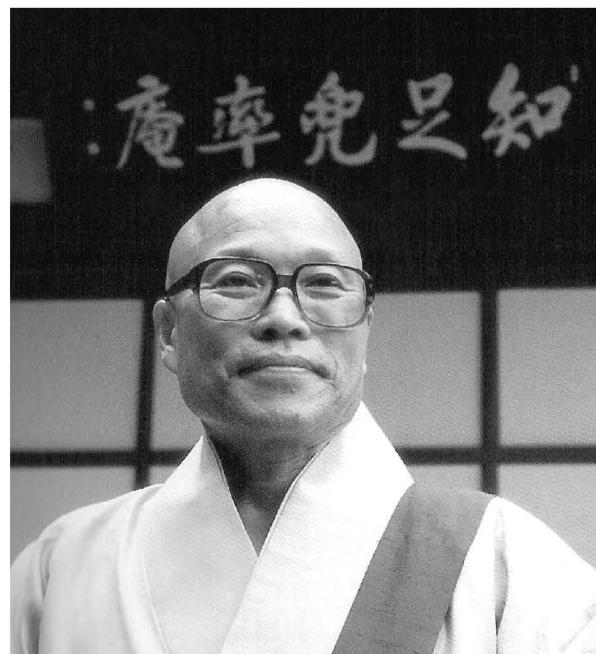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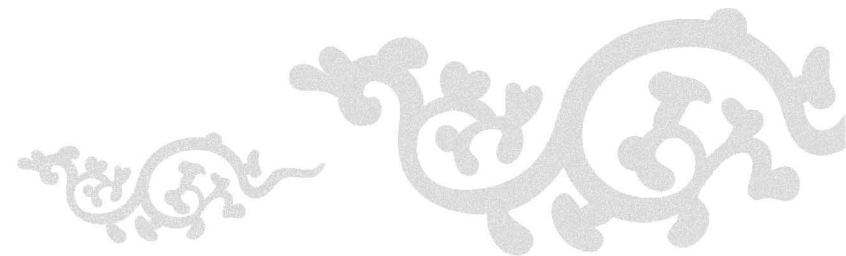
# 思

약력 | 정민님은 한양대 국문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한문학 전공. 저서에 『한시미학산책』, 『비슷한 것은 가짜다』, 『미쳐야 미친다』, 『다산선생지식경영법』, 『18세기 조선지식인의 발견』 등이 있다.



## 사람노릇, 중노릇 ...

해운 / 사집과



겨울옷을 벗었다고는 하나 대관령 꼭대기에  
는 아직도 눈이 남아 있던 봄. 유독 강릉에 부  
는 바닷바람은 봄이라고는 해도 차가웠다.

그 당시 하루 16시간 일하던 나를 정말 힘들  
게 했던 것은, 고된 몸의 피로가 아닌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무너진 신뢰였다. 신뢰가 무너  
지자 난 더 이상 삶의 의욕을 느낄 수 없었고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렸다.

그 차가운 바람만큼이나 얼어붙은 마음으로  
찾아간 왜관의 작은 절. 내가 천 배의 절을 마  
치고 나오자 그 절 주지스님께서는 웃으시며  
“우리 은사스님이 쓰신 책이에요. 가지고 가서  
읽어보세요.” 하며 일타 쁘스님의 『윤회와 응  
보 이야기』라는 책 한 권을 건네 주셨다. 그렇  
게 난 불법에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일타 쁘스님은 1929년 충남 공주에서 출생했다. 5세 때 마을로 동냥을 하러 온 스님을 하루 종일 따라다  
니면서 천수경을 외웠다고 한다. 쁘스님의 집안에서는 친가, 외가 식구 49명이 출가하였고, 스님도 14세 때  
외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통도사에 계시는 고경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했다.

1946년 송광사 삼일암의 수선안거를 시작으로 일평생 참선정진에 몰두하셨던 쁘스님은 26세 때 선방을

다니면서 부지런히 수행하였지만 부족함을 느끼고 스스로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生死一大事’를 해결  
해야겠다는 굳센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속가에 살 사람이 아니다. 중노릇 아닌 딴 짓을 할 사람도 결정코 아니다. 오로지  
불법을 위해 살다가 죽을 봄인 것만은 분명한 것! 이 기회에 결정심을 완전히 다져 놓아야만 한다. 연비를  
하자. 손가락이 없으면 세속적인 모든 생각이 저절로 뚝 끊어질 것이고, 손가락도 없는 나에게 누가 사람노  
릇 시키려고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다짐한 후 오대산에 들어가 여름 한철 쇠 달 동안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면서 열심히 정진하신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대관령 꼭대기에 구름 한 점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마치 자신의 몸이 날아가는 것처럼  
느끼셨다 한다. 그리고 곧장 오대산 적멸보궁으로 가 7일간 업장을 녹이는 기도 끝에 드디어 손가락 12마  
디를 태우는 연비 공양[손가락을 태우는 소신공양]을 하신다.

그때 스님은 ‘이 육신은 한낱 기름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고, 6년간 태백산 도솔  
암에서 조금의 갈등도 없이 참선 정진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계율을 지켜야 불교가 산다.”고 하셨던 큰스님은 해인사 주지, 은해사 주지, 대한불교조계종 전계대화  
상,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등을 역임하셨고, 『생활속의 기도법』『시작하는 마음』『기도』 등 많은 저  
서를 남기고, 1999년 11월 29일 세수 71세, 법립 58세로 열반에 드셨다.

그 후 내가 다시 왜관을 찾았을 때 주지 스님께서 들어보라며 틀어주신 일타 쁘스님의 법문 테이프, 피곤  
에 절어 줄면서 큰스님의 목소리만 열심히 듣던 내 귀에, 단 한마디 강하게 남았던 구절이 있다.

“세상이 잘 돌아가게 하려면 사람은 사람노릇만 잘 하면 되고,  
중은 중노릇만 잘 하면 되는 거야.”

사람노릇이라, 중노릇이라…

연비 공양 후 6년간의 용맹정진 후에야 무엇에든 끄달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큰스님의 모습을 보  
고 출가한 나는, 세상의 시시비비에 끄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비에 젖지 않듯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그런 스님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큰스님의 수행과 법문을 통해 ‘나는 왜 출가했는가’ 가  
아닌 ‘출가했으니까’라는 생각으로 떠오르는 해를 맞이해 본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부지런히 공부하라  
날마다 하루 종일 누굴 위해 바쁠 건가  
바쁜 중에 한가로운 소식을 알면  
한 그루 연꽃이 끓는 물에 꾀리라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중에서

## 『초발심자경문』대로만 살아

-죽림정사 송암 큰스님을 뵙고-

종희 / 대교과



경봉스님께서 써주신 풀  
阿刺刺呵呵笑  
一点前是何聲  
宇宙人間幾得知  
虚空一點真消息  
하공에 한점 솔가락으로 친참 소식을  
한점 전에는 이 무슨 소리인가  
아자자 허허허

2500년 전 인도의 빔비사라왕은 부처님께 귀의하면서 대나무들이 우거진 한적하고 고요한 숲 한 가운데에 사원을 하나 짓는다. 이곳이 바로 불교 최초 사원인 죽림정사이다. 이곳 죽림정사에는 오랜 시간 동안 求法을 향한 열망과 간절함으로 분명 부처님의 많은 제자들이 모여 부처님을 찬탄 공경하며 또 감로의 법문을 들었을 것이다.

이른 새벽의 쌀쌀함을 뒤로한 채 우리들은 어디론가 향했다. 그 무언기를 얻고자 하는 열망과 간절함으로… 우리가 찾아간 곳은 시공을 초월하여 여전히 부처님께서 무진법문을 설하시며 가끔은 나무 아래에 앉아 깊은 선정에 들고 계실 것 같은 경주에 있는 또 다른 죽림정사였다.

“어여 와.”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 스님께서는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 주셨다.

올해 세수가 84세인 스님. 그러나 잘못 본 것일까. 너무나 정정하시고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꽃꽃하신 스님의 모습에 우리들은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것이 아마도 수행의 깊이에서 흘러 나오는 수행자의 향기리라.

우리들은 인사를 드리고 조심스레 말을 꺼내본다.

“스님! 저희 오늘 스님께 좋은 법문 들으려 왔습니다.”

“뭐 좋은 법문이랄 게 있어? 그냥 차나 마시고 가. 잘 왔어.”

스님의 구수하신 말씀과 편안하고 인자한 미소에 우리들의 긴장감은 어느새 조금씩 풀렸다.

“스님들 초발심자경문 다 배웠지? 그거대로만 하면 공부 다 돼. 좀 높아졌다고 안하니깐 문제지. 행자 때나 하는 거라고 안한다 말이여. 초발심자경문대로만 하면 공부 다 돼. 차나 다려.”

‘수행자는 理와 事가 늘 함께 따라야 한다.’ 출가하면서 줄곧 듣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이론과 실제는 언제나 따로 움직인다. 언제나 아는 것을 실천하

기보다는 새로운 것만을 쫓아가며 점점 초심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들. 이것밖에 할 말이 없다며 톡 던진 말씀은 짧은 순간 여러 생각들이 우리의 뇌리를 스치게 한다.

“스님! 경봉 큰스님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온사스님이신 경봉스님 이야기를 꺼내자 스님께서는 입가에 잔잔한 웃음을 띠며 방문 옆에 걸려 있는 글을 가리키셨다.

“큰스님 바로 모시고 있을 적에 스님께서 써 주신 글이야. 한 날은 문안을 드리러 갔더니 새벽 3시에 일어나 앉으셔서 이 법문을 해 주시고는 ‘좋제?’ 그러셔. 그래서 ‘예’하고 대답했더니 ‘내가 나중에 써 주꾸마.’ 또 그러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불러 갔더니 ‘아까 꺼 써 주꾸마.’ 하시더라고. 그래서 ‘몸도 편찮으신데 나중에 써 주세요.’ 했더니 ‘야!!!’ 하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지르셔. 이거 내 목소리는 작은 거여. 허허”

그렇게 고함을 대답 삼아 듣고 1977년 어느 이른 아침 이 글을 받았다고 하시며 우리에게 글 한자 한자를 읽어 주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방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경봉스님께서 직접 쓰신 반야심경을 나무에 새겨 놓은 병풍을 비롯하여 벽면의 큰스님 사진까지… 이렇게 방 안 곳곳에는 경봉 큰스님의 흔적들이 함께 했다. 아마도 마음 속 깊이 항상 은사 스님을 모시면서 경책을 삼고자 하신 것 같았다.

“스님은 무척 인자하시면서도 서릿발 같은 기상을 진작하셨어. 그리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자비하셨지.”

큰스님을 회상하며 잠시 허공을 바라보시는 모습에는 경봉 큰스님에 대한 그리움이 역력했다.

아주 오래 전에 운문사에 다녀 간 기억이 있으신 스님께서는 요즘은 운문사 대중이 몇이나 되나고 물으셨다. 스님들만 200명이 넘는다는 우리들의 대답에 스님께서는 많은 대중이 모여 사는 것이 대단하다시며 무언가 긴 이야기를 해 주고 싶어 하셨다.



“혼자서도 공부 잘하는 스님들이 많아. 나도 이라고 살지만 토굴생활을 한다고 나와 있으면 아무래도 자유로워지고 그러면 나태해져. 좋은 말이 있어야 돼. 대중 속에서 배우는 거여. 선방에서도 똑같아. 젊은 스님은 ‘노스님도 저렇게 버티고 앉아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되나’ 하고 어른 스님을 보고 재발심을 하게 되고, 어른 스님은 ‘내가 꽃꽃이 버티고 앉아 있어야 젊은 스님한테 도움이 되지. 어린 스님이 저렇게 앉아 있으니 얼마나 힘들꼬.’하고 젊은 스님에게 사표가 되어야 해. 절집에는 용사(龍蛇)가 혼웅(混融)해야 돼. 용이나 미꾸라지가 같이 어울려야 된다 말이여.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여.”

눈먼 거북이가 망망대해에서 목을 내밀어 구멍뚫린 판자를 만나 숨을 쉴 수 있는 인연처럼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공부할 수 있으니 이만큼 다행스럽고 또 고마운 일이 없다고 하신다.

“이 지구상에는 별의별 생물들이 많아. 두 발 짐승, 네 발 짐승, 땅속, 물속, 하늘에 사는 짐승들. 그러니 사람 몸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여. 나는 우리 부모님 몸 빌어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 몸 받았으니 얼마나 고맙냐 말이여. ‘참 고맙습니다’ 하란 말이여. 만나기 어려운 불법 만나고 받기 어려운 사람 몸 받고. 이렇게 고마운 생각 하면 뜨거운 눈물이 쑥 나오는 데 말이여. 늘 그 생각만 해. 그러면 모두가 고마워.”

다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판단하라. 반드시 서로 속임이 없느니라. 우리가 일체 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인연이든 기껍게 받아들인다면 정말 고맙지 아니하고 좋지 아니한 인연이 어디 있을까?

“스님께서는 공부하시다가 장애가 없으셨나요?”  
우리들의 조심스런 물음에 스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더니 공부도 제대로 안 했는데 무슨 장애가 있었겠느냐며 아무 대답이 없으시다. 다만 우리들에게 장애가 생기면 기도를 해 보라고 권해 주셨다.

“사실 기도하는 거는 자기를 정회하는 거거든. 자기 마음이 정회가 안 돼서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여.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뭘 얻으려고 기도해서는 안 돼. 무언가 바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 말여. 좋은 버리는 공부야. 일체 현상은 다 환상이라 생각해. 이거 시는 자체도 꿈속에 사는 건데 또 꿈을 꾸고 있어? 참선을 하든지 주력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거는 꼭 알아야 해. 금강경 4주계 약이색전이(若以色見我) 이음성구이(以音聲求我) 시인행사도(是人行邪道) 불능견여래(不能見如來). 이 사구에는 꼭 생각해야 돼.”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안팎의 경계들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그것은 다겹생대로 우리가 짓고 쌓아온, 중생을 중생에게 하는 무명의 소치일 것이다. 수행자들도 공부를 잘못하면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들은 부처님의 정法에 의지 할 뿐이다. ‘만일 형상으로 나[부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이 사람은 산된 도를 행함이니 능히 여래를 볼 수 있으리라.’

“망상이고 수마다 공부가 잘 안되니깐 오는 거여. 익어지면 올 수가 없어. 익지 않아서 오는 거여. 옛날에 스님들이 공부가 안 될 때가 되는 거라 했어. 애쓰면 극복이 돼. 공부하는 생각이 간절해야 된다 말이여. 참선을 할 때도 화두 그거 안 놓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여.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고 말이여. 화두를 잘 들면 간혹 잠이 와서 출지만 극복이 된다 말이여. 경봉스님이 해인사 선방에 계실 때 추운데 입 안에 얼음을 넣고 하다가 이가 다 빠지셨어, 잠 안 자려고 하다가. 망상이든 수마든 애써서 공부를 해서 이기려고 해야지. 애써야 돼. 애쓰는 것밖에 없어.”

우리는 옛 스님들의 간절함과 치열함을 얼마만큼 따라갈 수 있을까. 스님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서린 경책들이었다. 미래에 공부할 사람이나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나 과거에 공부했던 사람이나 문제는 간절히 애쓰는 마음이다. 속으로 몇 번이고 묻는다. ‘정말 나는 애쓰고 또 애쓰고 있는가?’ 그리고 몇 번이고 고개가 숙여졌다.

차를 마시며 잠시 우리들과 침묵을 지키시던 스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이으신다.

“길게 이야기해 봐야 다 헛소리여.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내 앞에서 뚱을 싸든 뭘 하든지 공부만 열심히 해. 못 본 체 못 들은 체 하고 말이여. 열심히 공부해서 불조(佛祖)의 혜命(慧命)을 잊는 게 우리 몫이다 말이여. 중 될 적에 편안할라고 중된 거 아니잖아? 명예 때문에 한 것도 아니잖아? 부자 될라고 했어? 아니잖아. 이 몸 아예 공부하다 죽어도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

『선가귀감』의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하는 스님의 말씀이 새삼 가슴 속 깊이 와 닿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종일관 허리를 꽂꽂이 세우시고 여여하게 앉아 계시는 모습은 그 자체가 무언의 대답이었다. 오랜 시간 오롯이 닦아 오신 德의 깊이를 어찌 가늠하랴. 따스하고 여유로운 햇살이 열어 놓은 창문을 통해 방안 가득 비출 뿐이었다.

통도사 극락암에서 출가할 당시 경봉스님께서 건너편 산의 소나무와 바위를 물끄러미 쳐다보시고는 스님에게 “송암(松庵)하면 되겠네.”하고 법명을 지어 주셨다고 한다. 소나무와 바위의 한결같은 모습을 닮으신 스님. 그러면서도 인자하시고 자애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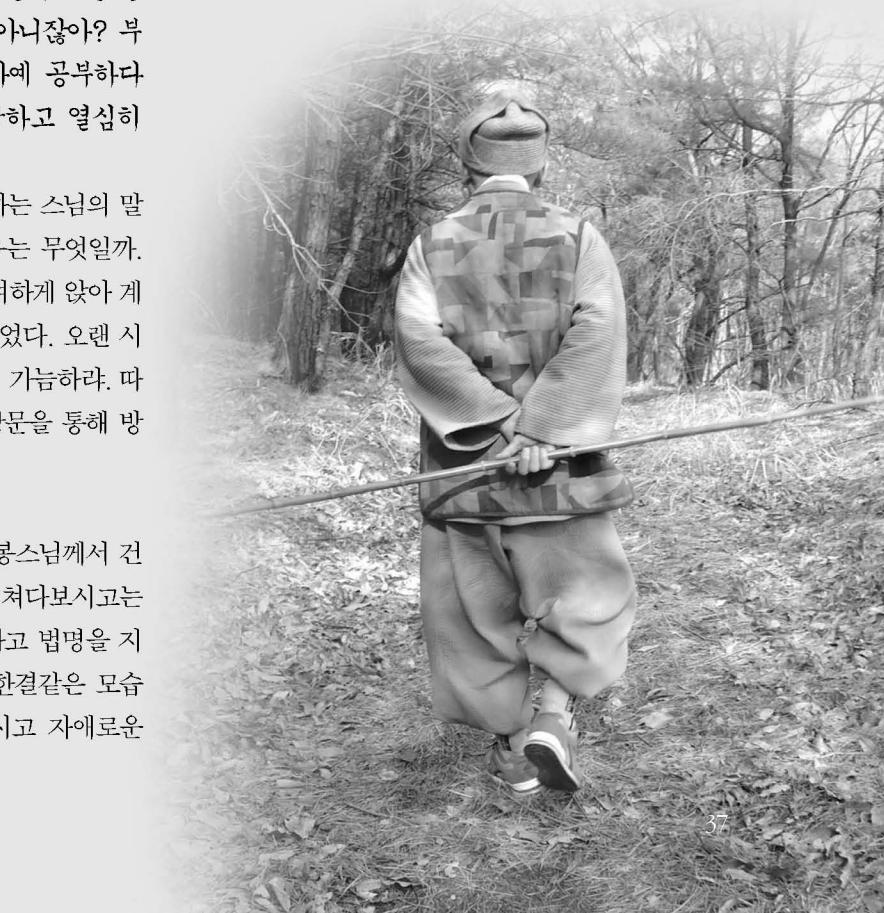
스님은 우리가 언제라도 이곳 죽림정사에 오면 솔내 음 가득한 향기로운 법문과 함께 넓은 바위의 넉넉함으로 편안함을 주실 것 같다. 산골 맑은 물로 우려낸 달고 맛있는 차와 함께 말이다.

“다음에 또 차나 마시려 와. 그리고 땀 거 할 거 없어. 『초발심자경문』대로만 살아.”

뒤돌아서는 우리들에게 마지막까지 초심을 견지하고 하신 스님의 말씀은 내내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 활구로 맺혀온다. ●

항상 佛法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道 닦는 業은 늘 새로워질 것이요, 항상 경사스럽고 다행하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마침내 물려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오래오래 하다보면 자연히 定과 慧가 뚜렷이 밝아져서 자신의 마음자리를 보고, 幻과 같은 자비와 자례로써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인간과 천상의 큰 복밭이 될 것 이니 모름지기 간절히 힘쓸지어다.

-보조국사 지눌스님의 「계초심학인문」 중-



## 나의 사랑하는 생활

일진 / 운문승가대학 학감

근래에 책을 읽거나 말을 들으면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보고 듣게 된다. 심지어 전화번호 안내 등을 받을 때도 “사랑합니다. 고객님.”하고 시작하는 추세에 어느덧 나도 ‘사랑한다’는 말을 ‘행복하다’는 말 이상으로 자주 보게 되었다. 실제로 나의 휴대폰을 통하여 심심찮게 안부 문자로도 보게 된다.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생활, 곧 나의 사랑하는 삶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정리,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언어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내가 사용해도 적합한지에 관해서는 우선 두고 옛날에는(내가 출가하던 무렵) 그리 쉽게 들어보지도 써보지도 못했던 말을 세월을 풍겨 삼아 마음 놓고 사랑하는 나의 생활을 이야기 하고 싶어진다.

사소한 나의 일상이 그대로 행복한 삶, 사랑하는 삶이길 바램에서 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복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기준도 없고 느낌도 각각 다른 것이니 쉽게 말하기 또한 그렇다. 그래서 초기에 성립된 경전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숫타니파타』에 설해진 부처님의 행복론을 중심으로 행복한 나의 삶을, 행복한 우리들의 삶을 확인하고 싶다.

『숫타니파타』는 잘 알려진 것처럼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간결한 산문의 형태로 결집한다. 암송하기 편하도록 구송(口誦)된 것 이기 때문에 별다른 변동 없이 후세까지 전해진 경으로서 가장 부처님의 육성에 가까운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 중 「더 없는 행복의 장(章)」에 한 제자가 단정한

모습으로 부처님께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행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품가는 행복을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여쭙자 부처님은 제자가 질문한 행복에 대하여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설파하여준다. 이를테면 부처님의 행복론인 셈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이와 가깝게 지내며  
존경할만한 사람을 존경할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자기부수에 알맞은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는 것  
이것이 유품가는 행복이다.  
부모를 섬기는 것  
처자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일에 질서가 있어 혼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제일가는 행복이니라.  
존경과 겸손과 만족, 감사와  
때로는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야 말로 더없는 행복 이니라…

계속해서 평범한 일상속의 행복을 일러주시는 데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은 행복이란 그렇게 멀리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일상을 떠나 특별한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다.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신의 삶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시종 강조하고 있다.

나는 아주 가끔이지만 대중의 규칙을 어기고 대중

공사 후 참회하는 학인스님을 볼 때가 있다. 대개 출타관계가 많은 편인데 언젠가부터 나는 참회하는 그가 규칙을 어겨서 밉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게 되었다.

한때는 나를 보호하고 있던 올타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가두어버린 담장으로 변하여 무단 출타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는 귀사. 공사. 참회… 다소 곤란 그의 참회는 그냥 단순한 참회를 넘어 진정 아름다운 참회였다. 그리고 이렇듯 아름다운 참회는 반드시 아름다운 절제에서 만이 전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자신이 깊이 느끼면 전 대중에게도 잔잔하게 전해진다.

### ◎ 절제, 참음의 행복

학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반드시 공부하는 『금강경』에 “수보리여, 내가 옛적 가리왕에게 신체가 베이고 잘렸을 때 나는 아상도 인상도 중생상, 수자상도 없었노라. 왜냐하면 내가 옛날 사지가 찢길 때 만일 四相이 있었다면 미땅히 노여움과 원망하는 마음을 내었을 것이다.”라는 글을 보았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매우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부처님 말씀은 나를 진정으로 비웠을 때 분노심이나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던 과거세의 인욕선인 이었던 당시를 회상하신 내용은 여러 가지 교훈을 시사하고 있다.

나는 지금 얼마만큼이나 참을 수 있을까. 이 순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자신을 관찰하여 한걸음 옮기는 벌끝에서부터 앞뒤로 움직이는 팔 끝에 이르기까

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일등 신체의 동작 하나하나를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나의 삶이다.

### ◎ 모두 행복하기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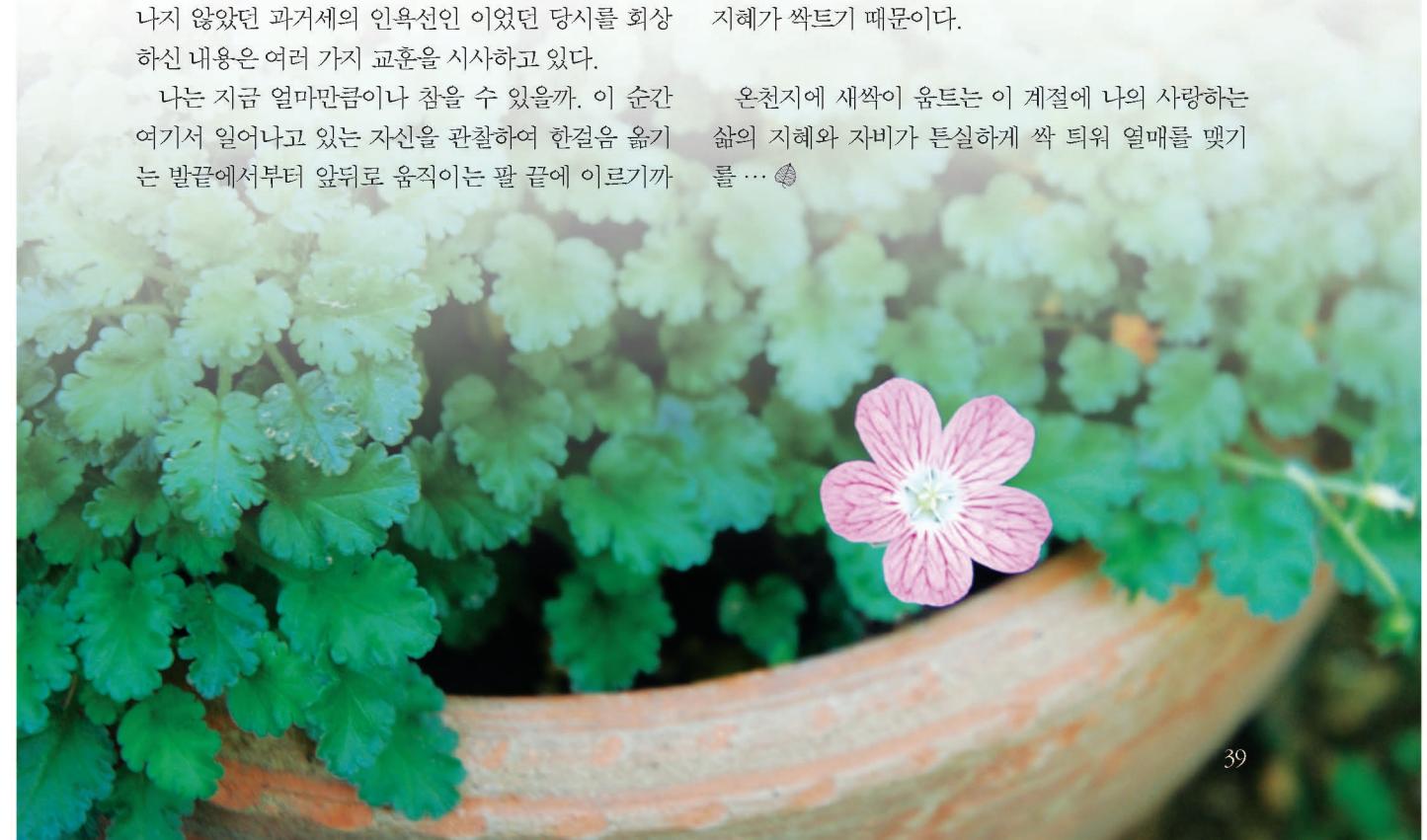
먼 길을 가려고 하면 우선 짐이 가벼워야 한다. 한 평생 괜찮은 수행자로 살아가려면 불필요한 짐을 덜어야 할 것이다. 비단 가시적인 물건뿐만 아니라 생각도 가볍고 단순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나의 경우 아직도 주변 환경이 단순해야 생각 역시 단순해질 수 있다.

버리기에는 아깝고 소유하기엔 짐이 되는 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다. 주변에 이런 물건들은 당연히 생각을 흘리지게 하고 정신을 분산시키기 마련이다. 정신을 탁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없어도 되는 것이 어디 물건뿐인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단조로운 대인 관계는 자기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을 막힐 수 있다. 내가 정화(淨化)되었을 때만이 당연히 나의 주변이 정화될 수 있다.

굳이 순서를 정하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따뜻하게 전해질수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지혜를 바탕으로 한 자비인 것이다. 순수한 자비심에서 지혜가 찍트기 때문이다.

온천지에 새싹이 움트는 이 계절에 나의 사랑하는 삶의 지혜와 자비가 틈틈하게 짹 트워 열매를 맺기를…



## 一切唯心造

동준 / 사교과



대중이 나를 공부시켜 주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 그 속에 내가 파묻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행자시절 했던 삼천 배 백일기도를 떠올리면서 다시금 나를 추스린다.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뿐이고, 내 속에 감춰진 무한성에 대해 놀랄 때 름이다.

삼천 배 백일기도는 우리 절에 스님이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겪게 되는 하나의 관문이다. 이 관문을 통과한 사람이어야만 은사스님이 삭발을 해 주신다.

절에만 가면 당장 머리 깎고 회색 옷 입을 줄 알았는데, 스님 되는 길은 내 생각만큼 그리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은사스님은 날 앓혀 놓고 스님이 되려면 얼마나 큰 복이 있어야 하는지, 아무 장애 없이 끝까지 중노릇 잘 하려면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을 신심과 원력을 세워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며 절을 하게 하셨다. 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은사스님의 한 마디 한 마디 하시는 확고한 말씀에 조금의 의심도 없었고,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 여겨 그 자리에서 당장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렇게 나의 행자생활은 기도로써 시작되었다.

이 기도는 정해진 시간인 새벽 3시, 오전 8시, 오후 1시에 정확히 시간을 지켜 하루 3번 법당에 가서

천 배씩 나누어 했다. 또 절을 마치고 내려와 방에서 능엄주 21독을 쳤다. 절하는 것도 다리가 많이 아파 힘들었지만, 뜻도 전혀 모르고 발음도 잘 안되는 능엄주를 21독이나 읽어 내기란 쉽지 않았다. 하루 안에 다 못해서 다음날 미룬 것까지 다 한다고 애 먹은 적도 많았고, 지금도 여전하지만 그땐 어찌나 잠이 많았던지… 또 장이 안 좋아 절하다 몇 번이나 해우소를 드나들며 기도 시간을 많이 지체해 대중스님들 걱정 끼쳐 드리기도 하고, 기도 중 또 어떻게 알았는지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날 데려가겠다고 눈물지으며 유팍지르셔서 많이 속상해하고 눈물 흘리기도 했다. 이렇게 백일기도 내내 일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대중스님의 보살핌 아래 여기서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내지 않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다. 하지만 이런 굳은 다짐과는 달리 다리는 자꾸만 아파왔고 몸은 마음처럼 그리 가볍고 빠르게 움직여 주질 않았다. 어느 날은 이리다가 스님 되기도 전에 다리병신 되는 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은사스님은 이런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하신 것인지 한마디 강한 말로 날 쳐 주셨다.

“절 하다가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설령 죽는다 해도 좌복 위에서 죽겠다는 각오로 절해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쇠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정말로 나는 죽을 각오로 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생에 안 태어났다 셈치고 목숨 내놓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 한번 해 보자!’ 힘들 때마다 이 말을 되새겼고, 그럴 때마다 분심이 일었다.

이렇게 한 마음 내어 기도를 하니, 예전에 비해 다리도 덜 아팠고, 몸의 고통에 대한 집착도 덜했다. 이것이 바로 一切唯心造!!! 그제서야 나는 그 말을 온몸으로 받아 녹여내고 있었다. 비록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다리는 뼈를 깎아내는 것처럼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했지만, 내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으며, 살아 헤엄치는 한 마리 물고기 같았다. 나는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절 기도를 통한 나의 변화였다. 그렇게 하루하루 충실히 절하고 또 절했다. 그 간절함 덕분이었는지 회향 일을 며칠 앞둔 문수 삭발일에 삭발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 뒤 기도를 무사히 회향하게 되었다.

난 가슴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기쁨의 눈물을….

그 어떤 일도 누가 나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누군가가 나 대신 죽여 줄 수도 없고, 나 대신 밥을 먹여 내 배를 부르게 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기에 항상 내 스스로가 생각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만 한다. 대중 속에 섞여 그 흐름에 수순해 화합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도 그 속에서 항상 내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한다.

앞으로 중노릇하면서 수많은 경계가 닥쳐와 날 힘들게 할 때마다, 행자 때 했던 이 기도를 잊지 않고 매 순간 떠올리면서 그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극복해 나갈 것이다.

부처님!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돌아가 의지하고 예배합니다. 결단코 이 불법 문중에서 물러서지 않게 해 주십시오. ◉



## 희망에 대한 斷想

일혜 / 사집과

앙상하기만 하던 나뭇가지, 어둑할 무렵에 지나갈 라치면 어김없이 얼굴에 가벼운 생채기를 내곤하던 그 나뭇가지에 갑자기 봉긋한 봉오리가 맺혀 있다. 반갑다! 이 반가움이 진부한가? 아무렴 좋다. 새싹을 보며 봄을 반기고 그 생명력에 감동하는 이 일련의 진부한 반응들, 그것을 지금 내가 겪고 있음에 나는 안도한다. 고백컨대 나는 오랫동안 이 봄의 약동하는 힘을 부산하고 호들갑스러운 것으로 매우 귀찮아했기 때문이다. 희망! 희망을 굳이 계절에 비유하자면 그것은 봄이다. 희망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 힘이 봄이고, 그 진부함에 이제는 계합하고 싶은 나의 마음이 또한 봄이다.

오랫동안 나는 ‘희망’이라는 가장 긍정적인 단어를 대부분 가장 부정적인 어조를 통해서만 들어왔다. 내 주위에는 “나는 이러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희망을 질 수 있겠어.”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늘 포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은 그다지 모순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원래 ‘희망’이라는 것은

절망의 심연 속에서 견뎌 올리는 것이며, 어떤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 자리가 바로 희망이 있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는 다소 통명스러움에 가까웠다. 희망이 없다는 절규는 결국 희망을 갖고 싶다는 것에 다름 아닐 텐데 나는 많은 경우에 그들이 부여잡고자 하는 희망이라는 것에 회의적이었기 때문이다. 희망은 흔히 사람들이 이 세계에서 각자 추구하는 가치들을 그 내용으로 한다. 신체적 건강이나 매력, 경제적인 富, 문화적 생활의 향유, 직업, 연애, 결혼, 각종 명예 등등 그것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치의 목록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것보다 조금은 이타적이고 공적인 것들 역시 인간 이성이 만들어낸 것인 한 하나하나의 가치 추구가 다른 가치를 소외시키거나 억압하기 쉽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 가치들에 대해 내가 회의적인 이유는 그것들 자체의 결점이라기보다는 그 가치들의 추구에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함정에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다른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서 다른

환경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간다. 동일하지 않는 조건에서 동일한 가치의 추구는 ‘차이’를, 많은 경우에는 ‘차별’을 발생시킨다. 누군가가 더 가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상대적으로 덜 가져야만 하기에 나의 희망은 누군가의 절망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나는 차라리 사람들이 조금씩 절망하는 아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희망’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이런저런 구체적인 희망사항에 대해서는 투덜거리면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변화해가는 모습은 어떤 설명을 덧붙일 필요 없이 그냥 고귀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한 인간이 자신이 놓여 있는 현재 상황을, 가장 옴짝달싹할 수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매여 있던 사슬을 자르듯 단박에 끊고 유유히 비상하는 모습을 볼 때면 ‘아, 저 것이 인간이구나!’ 하는 경외심을 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희망’에 대한 나의 냉소적 태도가 무장해 제 당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희망이 없다는 상실감으로 삶을 중도에 폐기처분하다시피 하는 사람들나를 포함하여-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 를 간절히 원했는지도 모른다.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을 사실은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바람’이나 ‘기대’를 가지는 것과는 다르다. 희망은 어떤 사건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실현되기를, 내 삶의 역사에 불현듯 발생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 기다림이 아무리 부지런하고 끈기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또한 희망은 어떤 내용물을 담고 있는 선물상자도 아니다. 포장을 풀고 상자를 열었을 때 마음에 흡족한 어떤 것이 담겨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그래서 성취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희망은 매순간 인간이 자신을 제한 짓고 있는 조

건과 상황들로부터 자신을 도약시키는 힘이며, 그저 힘일 뿐이며, 그 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희망에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이는 오직 ‘인간의 완성’ 혹은 ‘완성된 인간’이다. 자신을 제한하고 있는 어떤 조건들을 해체하고 덜 제한되는 존재로 비약하고자 하며 마침내 아무런 제약 없는 완성된 존재로 비상하고자 할 때 그 반복되는 도움닫기의 시도가 ‘희망’이다.

이차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 <피아니스트>는 한 유대인 피아니스트가 전쟁의 한복판에서 전전긍긍 몸을 숨겨가며 생명을 부지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전쟁이 진행될수록 생존을 위한 그의 노력은 더욱 위태로워지고 또 그만큼 구차스러워진다. 전쟁의 막바지, 빈 폐허 주택가에 은신해 있던 그는 결국 독일군 장교와 맞닥뜨리게 되고, 장교가 권총을 겨누며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그는 주저 없이 대답한다. “나는 피아니스트다.” 그리고 쇼팽의 야상곡을 연주하기 시작한다. 수염과 머리카락으로 뒤덮인 얼굴과 방금 전까지도 뺑부스러기를 찾아 해매던 시커멓게 때 묻은 손으로. 감독의 의도는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곡과 전쟁의 비인간성을 대비시키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게는 그 순간 그가 수년 동안 홀로 살아남기 위해 끈질기게 몸을 숨기고, 도망치고, 화장실의 오물통을 들이키기조차 마다하지 않았던 그 모든 질척거리는 행위들이 거대한 숭고함으로 다가왔다. 그것은 동물적인 생존본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선율을 창조해내는 인간 존재의 도약을 매순간 감행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나의 희망은 우리가 그런 도약을 꿈꾸고 실천하고 완성할 수 있는 존재라는 데에 있다. 봄의 기운에 힘입어 겁 없이 말해 본다. 희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달리 인간이겠는가? ●

## 세상 속에서 만난 부처님

혜강 / 대교과

똑똑! 딱딱!

경쾌한 목탁소리 장엄한 염불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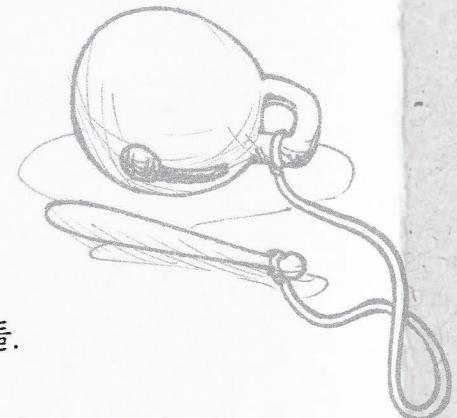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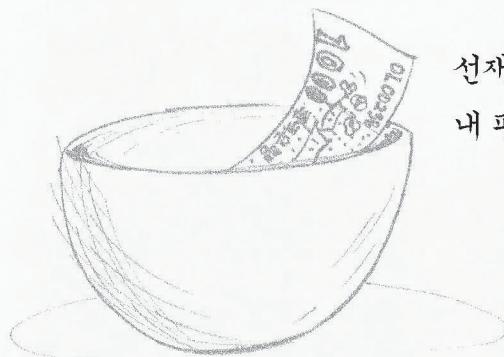
바리때 하나 들고 나선 그길,

낯선 세상에서 만난 친근한 부처님들.

아채가게 아주머니 흙 묻은 천 원 한 장  
 배고픔에 굽주린 어린이들 배를 채우고,  
 생선가게 아저씨 비린내 나는 천 원 한 장  
 연탄 한 장 드리워 온돌방 만드는 보살행 하네.

꼬부랑 할매가 파는 쑥 한 소쿠리  
 깊은 주름보다 더 꼬깃꼬깃한 천 원 한 장에는  
 시줏돈 위한 줄 절실히 깨달아 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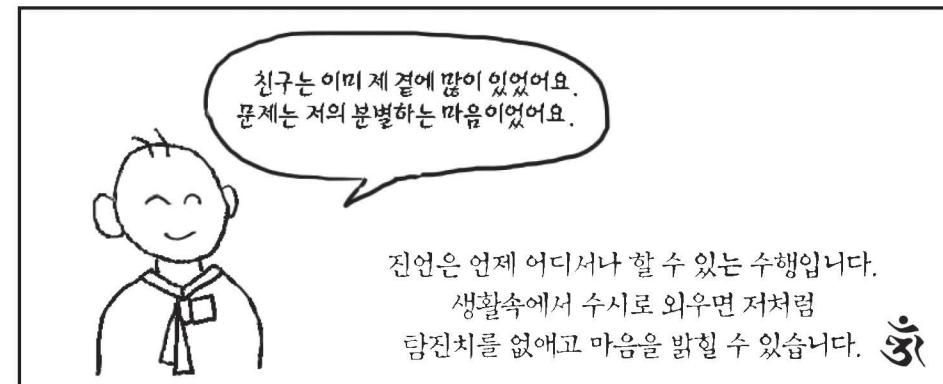
선재동자 되어 만난 수많은 이들  
 내 평생 중노릇의 소중한 선지식이 되었네.



## 옴 가마라 사바하

(좋은 친구를 일찍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진언)

편집부



“좋은 친구는 뛰어난 의사와 같습니다.  
 치치고 병든 마음을 낫게 해주니까요.  
 좋은 친구는 숙련된 항해사와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험난한 바다를 무사히 건너게 해주니까요.”  
 『열반경』

## 물 흐르듯...

혜민 / 사미니파

운문사의 하루하루가 같 때마다 병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새들이 여기저기서 울어대는 것이요,

그 둘째는 새싹들이 점점 커지고 꽃들이 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량 구석구석 돌아보면 신기하고 예쁜 것 투성입니다.

큰 은행나무는 솔톱만큼 푸란 잎이 나고 있고요,

화단에 보라 캐비꽃이 피어나고요,

개나리가 늘어져 있고,

비가 오고 난 후여서인지 이목소 물이 더 많아졌고요,

운문사를 감싸고 있는 호거산을 더 커졌습니다.

아! 이리도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요?

이 좋은 도량은 누군가 말 안 해도 봄 되면 꽃 피우고,

여름 되면 청청하다가 가을 되면 열매 맺고, 겨울 되면 세찬 눈보라이고,

또 봄맞이 하듯...

우리 공부도 물 흐르듯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대중스님들께 한 가지만 배워도 200가지가 넘겠지요.

천 그 중에 한 개라도 배운다면 운문사에 온 걸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 물 흐르듯 살고 싶습니다.

## 운문호 타이타닉

광우 / 사미니파

2007년 3월 16일 막음.

새로운 항해가 시작되었다.

으레 미지에의 여행은 철램과 기대감으로 채워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여행은 색다르다. 1등석이 아닌 지하 2층에 두꺼운 철문으로 갇혀진 3등석에서 맞이하는 항해 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 주거이동의 자유가 통제된 상황에서 하루 18시간 노스톱으로 빼곡하게 채워지는 하루일정이 과영 녹록한 것은 아니었다. 아주 가끔 '상소부족'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화려한 첫 경험이기에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다.

그 밖에 마음 하나,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무수한 3등석의 구성원들이 제 몫을 하므로 한 공동체가 유지된다고 하는 실감.

마음 둘, 다양한 프로그램의 움력으로 순간순간이 새롭고 신선했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

그렇다. 특수 상황이기에 술한 특별한 경험이 가능한 곳이 또한 대 운문호인 것이다. 스스로 선택한 세상에서 또 다른 나와 나를 비추는 남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축복이다.

이제 어느 정도 멀미도 가신 듯하고 4년간의 항해가 모두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시절이 되기를 바라는 일념으로 나의 몫을 다하고 싶다. 침몰해가는 세상에서 타인을 위한 음악을 연주하며 작은 위안과 평안을 주던 영화 속의 바이올리니스트처럼...

항해의 목적지는 4년 후에 다다를 어딘가에 있는 자유의 땅이 아닌, 오늘,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이 아닐까?

오직 활 뿐!

순간순간 깨어서 나를 알고 나를 찾아 나와 네가 둘이 아닌 진리를 실천해야 할 일이다.

"Welcome to Great Un Mun Sa!"

## 반복의 힘

편집부

이번 봄호는 100번째로 발간되는 운문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100이란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마을에서 아기가 태어나 100일이 되면 이제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온전하게 자랄 바탕을 마련했다 하여 잔치를 벌이고, 남녀가 만나 교제를 시작해도 100일째 되는 날을 크게 기념합니다. 무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때 100일 기도를 부치는가 하면,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을 낳은 응녀도 100일간 캄캄한 동굴에서 쑥과 마늘만 먹는 고통을 감내한 후에야 비로소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전해집니다.

이렇듯 '100'은 꽉 찬 느낌을 주는 '완벽한 숫자'인 동시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거쳐야 할 인고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100이라는 수는 '0'이 없었으면 이 세상에 나타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0'을 처음 발견해낸 것은 인도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영어 'zero'는 힌두어 sunya에서 파생된 것으로, 숫자 '0'과 '空'의 두 가지 뜻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들 중에서 인도인들만 유일하게 '0'을 만들어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미 '空'의 개념에 친숙했기 때문입니다. '空'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0이라는 숫자가 없었을 것이고 0이라는 숫자가 없었으면 100을 비롯한 모든 수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체계가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학자 단치히(T.Dantzig)의 말처럼 현대 과학과 산업은 물론 상업조차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없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 쓰였던 '0'으로부터 이처럼 놀라운 현대문명이 변성해 나왔듯 우리 눈에 보이는 외부세계는 '空'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현상계에서 우리 눈에 아무것도 없다고 인식되는 빈 곳은 실제로는 강력한 어떤 힘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가 '있다'고 느끼는 모든

것은 이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축적된 것일 뿐 본질에 있어서는 저 허공과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有와 無, 물질과 정신, 객체와 주체, 외부세계와 정신세계는 실상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없는 것으로, 끊임없이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B.C.500년 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는 '0'의 탄생 이후 수천 년 동안 거듭 발전해온 현대 과학이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해 이제까지 내린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수저 하나를 들었다 놓는 단순한 행위, 아무리 작은 생각이나 몸짓도 전 우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지식의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우리가 잠깐 일으킨 생각,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기계적으로 삶을 반복하곤 합니다. 사실 산다는 것 자체가 수많은 사소한 것들의 단순 반복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것들 가운데 우리 눈을 스쳐지나가는 아주 작은 원인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미미한 것들의 단순한 되풀이가 신과 맞먹을 정도의 큰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악기나 운동 등을 연습할 때, 혹은 외국어를 공부할 때, 매일 반복해도 늘 그 자리인 것 같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실력이 한 단계 향상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류도 늘 같은 모습을 되풀이하는 것 같지만 수만 년에 한 번씩 큰 폭으로 진화합니다.

우리의 수행 역시 아무리 노력해도 '죽 떠먹은 자리'인 것 같으나 꾸준히 열심히만 하면 대나무에 돌 부딪치는 소리나 닦 우는 소리 같은 아주 작은 일을 기연으로 하여 깨달음의 경지에 뛰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100이란 수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숫자 100이, 무엇이든 그만큼만 반복하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 도약의 기대감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늘 되풀이되면서도 늘 만만치 않은 것이 삶이지만,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 것, 우리가 힘겨워하고 취약한 지점 안에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음을 믿고 그 반복을 묵묵히 견디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알아챌 수도 없이 흘러가는 한 생각 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알고 다스린다면 따로 수행이라 이름 붙일 것도 없을 것입니다. ●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의식의 바다로 흘러들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주를 만들며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의 선한 행동은  
세상의 고통을 없애고 기쁨을 더하는 아주 소중한 것이다."

- 턱낫한 스님의『Power』중에서 -



## 운·문·소·식

작년 10월 16일 제7회 졸업생 진성스님께서 운문사 주지로 취임하셨습니다.  
교무는 운산 강사스님이 재무는 제31회 졸업생 법광스님이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 3월 17일 개학공사 및 신입생 방부(정주스님 외 3명의 연구생 스님과 사미니파 63명)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3월 17일 ~ 19일 대중스님의 무장무에를 발원하는 신중기도가 3일간 대웅보전에서 있었고, 회향일에는 화재예방 소금 묻기가 있었습니다.
- 3월 23일 치문반 스님들의 사리암 참배가 있었습니다.
- 3월 24일 서울 무역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불교박람회'에 화엄반 스님들이, 청도 제1회 '유동제'에 사교반 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3월 28일 감자심기 대중운력이 있었습니다.
- 3월 29일 염불수업을 시작으로 맹자, 펴아노, 서예, 사군자, 영어, 일어, 꽂꽃 이, 요가, 컴퓨터 등 각종 외전이 시작되었습니다.
- 3월 30일 봄철 첫 自恣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4월 2일 연례행사인 대교과 스님들의 탁발순례가 부산, 경주, 대구, 동국, 언양 등지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탁발순례는 운문사 인근지역 학교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급식비와 학자금 지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총 탁발금액은 8,500,000원으로 군종교구 포교지원금으로 100만원, 금천중고등학교 급식비로 150만원, 대구 급식소에 100만원, 신원리 불우이웃돕기로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 신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4월 2일 ~ 11일 직지사에서 열린 27회 '구족계 수계산림'과, 15회 '식차마나니 수계 산림'에 강주스님은 찰중과 강의를, 학감스님은 갈마사, 법장 강사스님은 사미니 습의사로 참석하셨고, 사교과 스님 49명이 식차마나니 계를 수계하였습니다.
- 4월 3일 ~ 5일 석굴암, 불국사 참배, 남산 산행 등 대중이 봄소풍을 다녀왔습니다.
- 4월 7일 '사찰조형의 기본정신과 질서'라는 제목으로 현고스님의 특강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4월 12일 쑥 뜯기 대중운력이 있었습니다.
- 4월 16일 ~ 18일 각 부서 신입생활영화가 있었습니다.
- 4월 19일 천연기념물 제 180호 쳐진 소나무에 막걸리주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 4월 20일 학인스님들의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4월 27일 봄철 포살이 청풍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 5월 5일 30일간 봄방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도와주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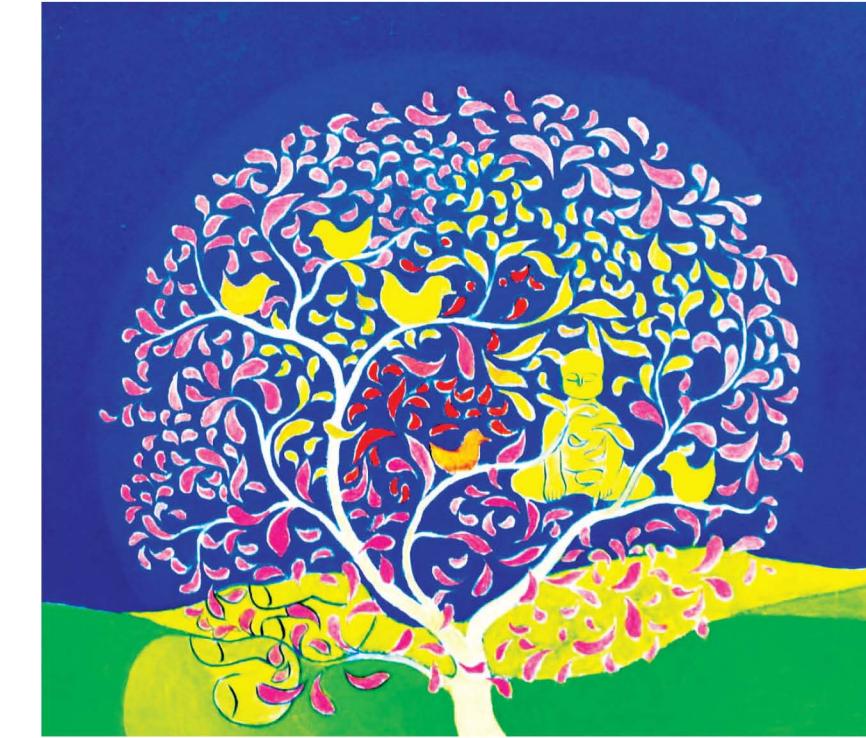
- |            |           |           |           |
|------------|-----------|-----------|-----------|
| • 복천암 주지스님 | • 일봉스님    | • 구신희 불자님 | • 천정환 불자님 |
| • 이기태 불자님  | • 김태엽 불자님 | • 조용범 불자님 | • 권혁창 불자님 |
| • 장정태 불자님  | • 최상희 불자님 | • 김경희 불자님 | • 정석순 불자님 |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해주세요. ☎ 054) 372-8834 (FAX 겸용)

## | 등 불 |



꿈꾸는 동자승 (oil on canvas)

봄 바람에 꽃이 날리는 꿈을 꾸면  
깨어 나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 - 서 행(西行) 법사 -

『槐安 國語』中

그림 | 김규완 ([www.dowhahun.com](http://www.dowhahun.com)), 목포대학교 미술학과 동대학원 졸업, 1991년 첫 번째 개인전 이후  
'꿈꾸는 동자승 서쪽나라로', '꿈꾸지 않는 자의 하루' 등 여러 차례 개인전을 개최함.